朝鮮日報
夕刊 十二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印刷人 方應謨 / 編輯人 金炯元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十一番地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本社發行定期刊行物 (上同)『朝光』月刊 / (上同)『女性』月刊 / (上同)『少年』月刊

옴 히벡고 풍피 증렴가 青山膏 本舖

伊에合併承認을 英政府·聯盟에要請
아브놀事務總長에覺書提出
理事會의假議題로上程豫定

【쥬네브十一日發同盟】英國政府의 聯盟代表 니콜스氏는 本國政府의 訓令에 基하야 十一日午前아브놀事務總長을 訪問 覺書로써 來五月初旬의 第百一回聯盟理事會에 에디오피아問題를 上程할것을 正式으로 要請하엿다 니콜스代表의 覺書要旨는 如左하다

英國政府는 五月의 聯盟理事會를 비롯하야 多數의 聯盟加盟國이 伊太利, 에디오피아의 倂合을 事實上承認할과如한 決定을하얏슴에도 不拘하고 他方에잇서서는 聯盟加盟國中에 아직承認을 躊躇하고잇는나라도잇다는 不自然한 情勢에 對하야 聯盟의 注意를 喚起하지안흘수업다 英國政府는 如斯한 不自然한 情勢를 一掃할 必要가잇다고思惟한다

右覺書를 接受한 아브놀事務總長은 英國政府의 要請을容納하야 에디오피아問題를 理事會의 假議題에 加하는同時에 이를 各聯盟加盟國과 에디오피아皇帝에게도 通告하기로되엿다

이어 重視되고잇다 어는 獨墺合邦을 完成한 히틀러總統의 五月羅馬訪問을豫定이므로 英國이 이에앞서 伊太利와의 關係를 調整하려는것이라하야 特히 注目을끌고잇다

英伊會談結果 英要請當然視

【倫敦十一日發同盟】英國政府가早晩伊太利의 에디오피아倂合承認의 態度를 取할것은 英伊會談의 推移로 充分히 豫想되고 잇섯스므로 政界方面에서는 十一日 英國政府가 聯盟에對하야 同問題의 理事會上程을 正式要請하얏다는 報道에對하야 英伊會談의 當然한 歸結로 여기고 別로 놀래지도안는다 英國政府가 三月初旬 英伊會談開始에 當하야『英伊間의 諸懸案이 圓滿하게解決되면 英國政府는 聯盟에對하야 率先 伊太利의 에디오피아倂合承認을 要請하야 同問題에關한 列國의 自由行動回復에 努力한다』고 言明한 事實이잇서 英國政府今回의處置는 右言明을 履行하려는데 不過하다한다

協定効力條件으로 保障條項을揭揚
英伊新協定의內容

【倫敦十一日發同盟】英伊會談은 드듸어 最後의段階에 到達하야 協定案文의 起草에 入하얏는바 新英伊協定의 正式調印은 아마 十六日 羅馬에서 駐伊大使파ー스卿과 치아노外相과의間에 하게될模樣이다 隨聞하건대 新協定에는 特別한 保障條項을 揭하야 協定의 効力發生의 條件으로하고 [illegible]

一、伊太利政府는 [illegible]

一、英伊兩國政府는 [illegible] 伊太利의 [illegible]

디오피아倂合을 承認할 [illegible] 의 二項이 規定되엿다고 보이는데 AP通信社倫敦支局이

十一日 英伊協定의 骨子로 報道하고잇는바는 如左하다

一、英伊兩國政府는 各히 地中海에잇서서의 相對國의 特殊權益을 相互로 再確認하는同時에 公海에잇서서의 兩國의 權益에 對하야서는 地中海의 現狀維持를 適用함

一、英國政府는 스에즈運河利用에關한 伊太利의 權利를 承認함

一、伊太利政府는 리비아駐屯軍의 [illegible] 으로 減少할것

一、英伊兩國政府는 各히 相對國의 植民地權益을 攻擊하는 [illegible]

近近英陸相 羅馬訪問
二段的親伊工作

【倫敦十二日發同盟】英伊交涉은 兩國政府의間에 事實上協定이成立의域에 達하엿다하여 十二日데이리·헤랄드紙는 이미 判明되엿다고報하고 左와如히 報하엿다

英伊協定은 느저도十四日까지에는 調印될것이다 [illegible]

【倫敦十一日發同盟】[illegible] 羅馬訪問은 [illegible]

自治制記念式典에 行幸吩咐

【東京電話同盟】來十七日 宮城前廣場에서 府縣知事를 비롯하야 市町村長 그他自治關係者 一萬二千名이 參集하야 自治制發布五十周年記念式典이 盛大히擧行될터인데 此日 天皇陛下께옵서는 午前十時三十分 宮城御出門 親히 同式典에 行幸하시옵 實旨를 十二日 吩咐하게시옵시엇다

同日 陛下께옵서는 御通常禮裝으로 親臨하시옵시사 優渥하옵신 勅語를 下하옵시리라고 承聞된다

大矢主稅局長以下 天皇陛下께拜謁

【東京電話同盟】稅制及稅務事務會議에參列한 大藏省主稅局長大矢半次郞氏以下二十一名은 十二日午前十時參內 天皇陛下께拜謁하엿다

長期化時局對備 官民協力이必要
劃期的兩制度實績現顯에努力
大野政務總監歸任車中談

議會出席 其他重要用務로 지난一月에 渡東中이든 大野政務總監은 日數로八十五日、月數로 四個月만인 十二日午後一時三十五分 京城驛着列車로 歸任하얏는데 總監은 道中까지出迎한記者에게 車中에서 左와如히말한다

朝鮮의事情은 拓務、陸軍、大藏等各省에서 詳察하고잇는關係로 諸種事業其他豫算에 極히 順調로 通過되엿다 敎育、產業、交通等 各種重要問題가山積하야잇는데 그圓滑을 圖함에는 今後一層相當한 努力을 要하는것이다 全般的軍需工業은 中央과敏活한 連絡을取하야 目下 時急한 그만치 圓滑한 進行을屬하라고하며 時局對策에關하야는 萬全을期하고자 相當한豫算을 計上하엿는즉 그豫算을 잘運用하면 別問題업시 進行되리라고 잇는다 그러나 長期化하는 이時局이므로 官民各位 一段의協心戮力이업스면 到底히 그完璧을期하기 어려울것이다 이에伴한 時局對策準備委員會는余가渡東中에 總督府에서 大槪準備가 完成되도록하므로 歸任하면 곳 具體的進行에 着手하라하는데 이것도 亦是中央과圓滑한 連絡을要하는것이다 官民을合하야 委員에任命할것은 勿論이나 人員數에잇서서는 一定한數字에 拘束되지안코 必要에應하라고한다 時局에重大關係가잇는 物資調整에 對하야는 極力實踐하야 有効의結果를 나타내라고하나 一課를 新設하야 事務를掌管하게할는지 엇더케할는지는 硏究中이다 今番實施되는 志願兵制度와改正敎育令은劃期的施設로 制度의길은 열렷스나 今後實績을 올림에 相當한努力을 要하게될것이다

朝鮮人勅選議員 一二人增員問題는 그러케 急速히 서두를問題가 아닌만치 急速한實現은 多少 困難치안흘가 생각된다 現下朝鮮의 敎育、產業、交通 此三大問題는 頗히 重要한것으로 現在보다 一層發達되도록 邁進할方針이다 北支開發은 地域的近接한 關係로만보드래도 朝鮮에서 積極的進出할必要가 切實한것인즉 自今 一層努力할方針인데 이것은北支와 朝鮮、朝鮮과中央=關定的連絡이 絶對必要한것이다 新設되는 產金會社는 內地에 根據를 두기는하나 內地보다 朝鮮의 金生產額이 훨신더만흐므로 資金運用의 本舞臺는 結局朝鮮에 될것인데 이에對하야는 目下 石川鑛山課長이東京서 商工省과具體的折衝을 進行하는中이다

裏日本과北支、滿洲連絡航路新設에 關한것은 新事態에빗치워 가장重要한 交通機關으로 方今關係當局間에 交涉折衝中인모양이다 人事異動에 關하야는 아직考慮한바업다 東京서 모르든것을 朝鮮서 언제떠드는것은 一種奇現狀인데이것은어번만이아니다 總監은人事異動에 關한것은 말을 흐리면서 確言을避하라는 態度가 顯著하엿다

英米間意見懸隔 三國海軍會議決裂?
噸數와備砲口徑의決定이問題
世界的軍擴競爭必至

【倫敦十一日發同盟】에스카레이터條項援用을 決定키爲한 英佛米三國海軍專門家會議는 마치내 十二日부터 英國外務省에서 開催되게되엿다 消息通의 觀測에依하면 主力艦新制限噸數는 아마四萬二千噸乃至 四萬三千噸으로決定할것이라고 보이는데 會議의 難關은 오히려 備砲口徑의 最大限決定에 잇서서 英米兩國의 意見에는 相當한隔離가잇는 模樣이다 卽

一、英國은 最大口徑은 十六吋로 充分하다고하야 十六吋砲以上의 大主砲는 艦型의 擴大를 招來한다는 意見을갓고 最大口徑을 十六吋로 決定하려고 主張하고잇다

一、이에對하야 米國은 十八吋砲乃至이以上의 巨大主砲를希望하고잇다

一、一方佛國은 에스카레이터條項援用을 留保한 經緯에 鑑하야 이備砲口徑問題의 論爭에는 參加치안흘것이다

【東京電話同盟】倫敦條約第二十五條의 制限條項을 撤廢한 英米佛三國政府는 十二日부터 三國海軍專門家會議를 召集하고 다시 制限에 關하야 協議하기로되엿는데 果然 如何한 方法으로 이 會議의 矛盾을 解決할지 我方關係側에서는 頗히 注目하고잇다 卽 米國海軍의 大艦巨砲主義에 對하야 英國海軍은어느程度의 妥協을 示하야 諸論戰見에 努力할것이나 問題의 第一點은 新合艦型의 增强에 對하야 米國의要求에 讓步한다하더라도 英國 [illegible]

英四萬二千五百噸 主力艦建造提議?

【倫敦十一日發同盟】去一日의覺書에依하야 英米佛三國政府는倫敦條約第二十五條를 援用하야 大主力艦建造에 着手할것을 決定하엿스므로 三國海軍專門家會議는 드듸여 十二日會議를 再開, 大主力艦의 具體的艦型을 決定하기로되엿는바 UP通信社 倫敦支局의 報道에依하면 英國側은十二日의 會議席上 四萬二千五百噸의 主力艦建造를 提議할 方針이라고傳한다

沿岸防備强化 米陸軍當局談

【華盛頓十一日發同盟】去三日上院을 通過한總額四億九千百萬弗의一九三八ー三九年度陸軍豫算案은 上院에서 沿岸防備費其他四千三百萬弗의 追加修正을 加한結果 下院에再附付하야 目下審議中인데 右豫算에 包含된米國沿岸防備强化의計劃에對하야十一日米陸軍當局은左와如히말하엿다

修正으로 下院을 通過하면我等은 沿岸防備를 一層强化하려는 從來閑却하고잇든 東部大西洋及 南部墨西哥沿岸防備에 完全한施設을할수가잇을것이다 米國陸軍의 具體的沿岸防備計劃은 여러가지로 講究되어 來年度沿岸防備費는 五千五百萬弗이넘을것인데 그半分을新長距離砲及水中地雷의 敷設等要塞改築에 支出하고 殘額을 沿岸都市及 海港附近의 機械化聯隊高射砲購入費에充當하게될것이다

달라디에佛首相 對伊接近謀策
外交調整에邁進決意

【巴里十一日發同盟】달라디에首相은 國家財政問題에對한 對策에腐心하는한편 英國의和協政策에模倣하야 對外關係의 調整에 邁進하려는 決意를 굿게하고 그第一着手로서 佛伊間의 正常外交關係의 回復에着手하리라고傳하는바 AP通信社의 報道에依하면 如左하다고한다

달라디에首相은 伊太利가西班牙의動亂終熄後 西班牙로부터 손을떼고 義勇軍을 撤收할것을條件으로 伊太利의 에디오피아倂合承認을 慎重考慮中인데 英伊協定의 成立을機會로 英國과 步調를가티하야 近近時命使節을 羅馬에 派遣하야 伊太利政府와 正式交涉을 開始하고 兩國多年의 國交調整에關한 新協定成立을 기다려 駐伊大使를 任命하야 從來代理大使를 形式的으로 駐剳케하엿든非友誼的態度를 一擲하고 緊密한友好關係를樹立할것이라한다

佛首外相渡英 英佛協力企圖

【倫敦十一日發同盟】달라디에佛首相은 英國과提携하야 西歐羅巴의 平和確立에 邁出할 意向이라고傳하는바 아바스通信社의 報道에依하면 同首相은 近近본네外相과가치 倫敦으로와 체임버렌首相과 할리팍스外相과 會見하야 西班牙問題、地中海問題、에디오피아問題를 中心으로 隔意업는 意見을交換하야 外交上의 協力을 促進하는 同時에 英佛共同作戰에 對하야 重要會議를하기로되엿다 이러하야 巴里、倫敦樞軸을 基調로하고 高度國防을 背景으로하야 往年의 佛國外交의 威力을 發揮할 決意라한다

時事解說
獨墺合邦投票

獨墺合邦을 正式으로 決定할歷史的國民投票는 지난十日 獨墺兩國에서 一齊히行하엿는데 이제 兩國政府의 暫定的發表에 依하면 獨逸은 投票總數 [illegible] 中 贊成投票 [illegible] 으로 贊成投票率九九、[illegible]%、墺太利는 [illegible] 反對及無効投票의合 [illegible]

◇

獨墺合邦問題는 오랜歷史를 가지고잇는 問題로 墺太利는 世界大戰後 상·제르만條約에依하야 獨立國家로서 그財政的經濟的地位는 到底히 一獨立國家로서의 體面을 維持하기가 困難하고 또墺太利國民의 壓倒的大多數인 九七%가 獨逸民族인 關係로 今番合邦에 對하야 國內에서는 [illegible]

◇

獨墺合邦은 한갓 國際的影響을보면 伊國은 好意的中立을 取하야 獨逸을 支持하는 態度이요 英國은 佛國을通하야도 [illegible]

全般的恒久的인 中央機關設置?
對支經濟事務局은中止

【東京電話同盟】對支經濟事務局設置에對해서는 支那開發會社設立以前에 具體化할豫定이엇스나 同機關은 그設置에對하는 豫算을 議會에 提出한 當初부터政府部內에서도 그리말에내키지안코 貴衆兩院에서도 對滿事務局의 前轍을 밟을것이라는 見地에서 그리 贊成치안헛다 그後現地方面의 意向은 同機關의 設置에 對하야 오히려 否定的이여서 此機關을 內閣에 設置하는것보다 現地機關에서 充分히 그機能을 다할수잇스므로 政府는 單純한 對支經濟事務局만아니라 文化機關과 對支政策을 遂行하는 中央機關을 設置할것이라하고 政府部內에서도 이에 贊成하고잇스므로 結局對支經濟事務局의 設置는 中止하고 關係方面과도 充分 折衝한後 東亞省과가튼 對支政策遂行의 恒久的中央機關設置의方向으로 나아가리라고본다

河上氏脫黨을 政友幹部慰留

【東京電話同盟】河上哲太郞氏로부터 脫黨通報를 接受한 政友會本部에서는 脫黨理由가 幹部改選에對한不滿이고 또十二日午前中까지에 脫黨屆를 受理치안헛스므로 極力同氏의 飜意를求하기로되여 鳩山、前田兩代行委員과 砂田幹事長으로부터 慰留하는한편 郷黨의先輩인 三土忠造氏、同僚인生田和平、宮脇長吉氏等을 動員하야 八方으로 飜意하도록盡力하고잇다

蔣의指定地로 中央黨部를移轉
抗戰自信喪失의證據

【香港十二日發同盟】前日에 漢口에서 開催되엇든 五期第四中全會議에잇서 中央黨部所在地의 決定이 問題가되엇든바 結局 抗戰期間中으로 事務所의 便利로보아 그所在地는 蔣總裁가 隨時指定하는곳으로하기로 決定을 보앗다고하는데 重慶이 行政上首府임에도 不拘하고 中央黨部의 所在地를 重慶으로 定치안코 上記와가티 決定되게된것은 漢口가 日本軍의 軍事壓力下에 不得已 放棄하게될 境遇를 豫想하야 中央黨部를 軍事機關과 가티 隨時移轉할수잇도록하자는 데서 나온것으로 和戰의 鍵을 蔣介石一身이 掌握한 事實과아울러 國民黨의 抗戰에對한 自信의 喪失을 意味하는것으로보인다

閣議는中止코 閣僚會議開催

【東京電話同盟】十二日은 定例閣議日이나 首相以下欠席閣僚多數로 午前十時三十分부터 閣僚會議를열고廣田外相以下各閣僚가 出席(首相、陸相、海相、商相、遞相欠席)風見書記官長으로부터 近衛首相과 永井遞相의 病狀에關하야 報告가잇고 同五十分散會하엿다

本社支社長會議

本社支社制實施後 第一回全朝鮮支社長大會는 十一日午後二時부터 本社會議室에서 開催하야 諸案件을 討議하고 同八時閉會하엿다 (寫眞은 會議光景)

孟縣西方에서 敵部隊를擊破

【石家莊十一日發同盟】十一日午後孟縣西方에서 我○○部隊는約一千五百의 敵과 遭遇交戰三時間後에 이를西北方으로 潰走케하엿다 敵의 遺棄死體는 三百을不下하나 我方의 損害는 不過負傷者四名이엇다

桃園逆襲敵反擊

【[illegible]十一日發同盟】十一日午前五時 小野部隊 [illegible] 約五百이 [illegible] 反擊에依하야 潰走하엿다

바市危機 프랑코軍進擊

【앙데十一日發同盟】프랑코軍의 左翼最前線部隊는 連戰連勝十一日바라굴을占據하자 쉬새업시 渡河하야 바르셀로나로向하야 二十키로의地點에 肉迫한후 다시 進擊하고잇다 그런데 프랑코軍의報道에依하면 人民戰線軍은 退却할때 바르셀로나南西五十키로의 地點에잇는 有名한 서내나修道院에 放火하야 完全히 이것을破壞하엿다

支那海關問題 英外務次官言明

【倫敦十一日發同盟】뻐틀러英國外務次官은 十一日下院質問時間에 支那海關問題에言及하야 如左한答辯을하엿다

北支那의 日本軍占領地帶及接收된海關收入은 天津稅務司의 個人名義로 橫濱正金銀行天津支店에 預金되엇고 中支那地域의 海關收入은 總稅務司와上海稅務司의 名義로 香港銀行에 預金되고 잇다 占領地帶 [illegible]

八面鋒

◇獨墺合邦 贊成投票 百%、히틀러公 口味에도 百%。

◇七面鳥가튼 佛蘭西政界 달라디에新內閣도 難航。

◇불붐 쇼당 首相專賣業者가 濟濟하니 不必걱정。

◇蔣介石 爆死? 責死으로 安全遷都?

◇內閣改造엔 一致나 具體化方策이問題。

◇고양이목에 방울은 달아야만 하겟는데 달方策이 杳然인가。

◇서서가는 列車食堂 생길까지올린다니!

◇黑字로 叩頭하는 鐵道局、機關車만 『鐵面皮』로 알엇더니……

人事·集會

◇野口遵氏(日窒社長)十二日午後二時十五分飛行機로入京豫定

◇濱田直吉氏(京城商議會頭)渡東中 十一日『아까쯔기』로 歸京

高級 夏物 羅紗既製品
◎大阪で 一番安く!! 三ツ揃・ズボン 詰衿上下 折エリ上衣 ◎一番よく 賣れる店◎
大阪市東區米屋町一丁目 羅紗製品卸 多田喜昭商店 電話東七臺一九番 (見本送呈 地生洋服相手限リ店問)

小間物 歯ブラシ 雜貨 各種ヘアーネット、つつみ布、おメカハー本舗 株式會社 馬場惣商店

御仕入은只今이最絶好期 婦人、子供用 ボタン과バックル
製造卸 藤本株商店 大阪市天王寺西門交叉點南 電話天王寺一〇六九 振替大阪六八一七九番 商報送呈

人絹綿布端切各種卸
◎モスリン綿ネル、絹ポプリン、本セル金巾、四綫、朱子、人絹 新規小賣開業者에게는懇切히指導합니다
大阪市南區瓦屋橋東詰大阪南局第三三號 田津村合資會社 電話南二四八三九 振替大阪一三三番 商報送呈 見本은五十錢要(切手)

營業種目 裏地アルパカ 紗天用斐絹 スレッキ類 綿絲絹絲 和洋ボタン
大阪市東區谷町二丁目 西野卸店 電話東二七二六 振替大阪七三七五番 型錄送呈

大阪瓦町 田中旗店 國旗會旗 優勝旗 日本毛織旗布 バンテン一手販賣 カタログ送呈 大阪瓦町 田中旗店

各種 ポンプ製作所 大阪市西區立賣堀北通四丁目 高級ポンプ專門製作 九喜勝三商店 電話新町九七二四番 工場 港區條中通 カタログ呈

うどん機特價賣出
營業用大型 一千五百圓 各種家庭用 飲食店 支那そば店用 十圓前後各種 スルメ延削機、小型製粉機、鰹節削機、マカロニー機、コンニャク機、細斷機、噴霧器
大阪市港區市岡元町一ノ三三 島根鐵工所卸賣部 電話西五七七四番

新興からし 冷소면·冷우동 冷豆腐其他여러가지반찬에고 초가루
新興蕃椒粉 고추가루 밀국수· 우동 豆腐 其他여러가지반찬의 고초가루
釜山 山西商店 / 京城 阿部本店 / 〃 辻本商店 / 〃 吉川商店 / 平壤 桑田商店 / 〃 江口商店 / 鎭南浦 山七商會 / 新義州 日滿物產株式會社 / 元山 重枝商店 / 〃 小野本店 / 仁川 中村商店 / 咸興 德元商店
類似品이만히잇사오니 商標에注意하시오 月美人印 カレーからしコショ 製造本舖

山口樂器店鍾路支店 京城府鍾路二丁目
빅타ー 콜럼비아 포리도ー루 蓄音器 [illegible] 在庫豐富

急告 禁煙劑가發明되엿습니다 [illegible] 朝鮮一手販賣所 元一社 振替京城二七五五九番 元山府上里一洞一三三

專門良藥 神經痛 [illegible] 兵庫縣明石市中町 太平堂 [illegible]

明治キャラメル 五十錢어치사시면정말飛行機를탄다!!
一、明治キャラメル五十錢分의中函(外函은不可)을封筒에너어서住所氏名을明記하고『府內蓬萊町明治製菓支店』으로郵送해주시면抽籤하야 京城遊覽飛行에招待하겟습니다
一、賣出期間 三月二十一日부터 五月十日까지
一、賣出區域 京城·仁川

MPM 엠푸라지나 メタプラチナ 純白金と變らぬ 新地金 製品ノ卸 カタログ進呈
釜山府幸町二ノ四五 岩崎商店 電話長一五一五番·振替釜山一六一七番

旋盤、ボールバン 電氣ドリール グラインダー 鐵工用工具一式 鐵管繼手 バルブ、コック、パッキング ボルトナット糸捻 自動車工業材料 カタログ進呈ス御申込ヲ乞フ
京城府黃金町四丁目二十二番地 原田商店 電話本局②三九一一、三五四三・二五三五 振替口座京城一六八八四番

本報咸南支社 咸興府大和町二丁目四八 電話一三四番

三百萬圓을一擲! 鑛山專門校를設置
小林鑛業社長小林氏의快擧
正式開校는明年中

백화류란한 광산경기 속에서 약진하고잇는 조선광업계는 총독부의 적극적시설과 민간자본의 활약으로 더욱 그발전이촉진되여가는데 광산개발의 기초가되는 고급광산기술의 부족은 조선광업계의 결함으로되여잇서 광산전문학교의 조선내 설치는 그전부터 관계방면의 현안이되여오던바 이번 소림광업(小林鑛業)사장 소림채남(小林采男)씨는 얼마전에 수적(穗積)식산국장 염원(鹽原)학무국장 석전(石田)광산과장과 여러번서로 맛나서 광산전문학교설치에 필요한교사와모든시설에 약삼백만원을 기부하겟다고 자진 신청 하엿다 대야(大野)정무총감과 수적(穗積)식산국장의 귀임을 기다려서 정식으로 기부를 하게될터이다 총독부에서도 소림씨의 이러한 미거에 매우감격하야 정무총감과의회견으로 최후결정을 볼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소림씨가 얼마전에 부내성남중학(城南中學)에 오십만원의 거액을기부한 사실에 감하야 이번 또 이러한 장거를 하게된은 일반사회에 큰 감격과기대를 던지고잇다 광산전문학교설치에관한 소림씨의 포부는다음과가튼데 광업계에 도한 큰화제를 제공하고잇다

一、소림씨의 경영하는 『랑그스톤』광 에서 리익을 노나서 이삼년 동안에 삼백만원을 숫자로 기부하기로 한다

二、광산전문학교의 경상비는총독부가 지출하고 교사의신축과 제반설비는 전기 삼백만원으로써 충당한다

三、학교의 재원을 풍부하게하야 광산기술에관한 적극적연구를 자유롭게하도록한다

四、학교의 개교는 소화십사년도부터한다

白衣天使一行 卅四名十四日凱旋

폭지응징의 성전에 참가하야 부상을 당한 용사의간호를위하야 눈물겨운활약을 계속하여온 백의의 천사 일본적십자사(日本赤十字社)조선본부 소속(所屬)제백칠십칠 구호반삼반(三班)반장이하 삼십삼명은 이번에귀환하게 위선해임케된다는바 룡산경유 오는 십사일오후두시 삼십분경성역착으로 개선하기로되엿다 그리고작년가을에 가치파견된 제백칠십륙 구호반은 여전○○에서 봉무하고잇다

通常郵便物 全朝鮮取扱狀況

전조선우편국소에서 취급한최근일개월간의 통상우편물총수는 사천구백칠십칠만칠천팔백팔십오통으로 그중인수(引受)가 이천삼백칠십유만삼천팔백칠십팔통이고 배달이 이천○백십삼만 삼천삼백칠통으로서 그중 서류우편은 인수로 칠십팔만칠천삼백칠십이통이며 배달로는 팔십이만팔천칠백삼십이통이다

遞信分掌局 監督課長會

체신국에서는 이달십사、십오이틀동안경성─부산─원산과및 평양등의각 체신분장국감독과장을 초집하고 근일에 개정될 우편규측운용에관하야 협의회의를 개최한다

志願兵二、六七三名
全南521名이最多●咸南62名이最少
願書接受期限十日까지의集計

지나사변발생이래 총후로 혹은 총군으로 제일선에서 열렬한 애국의 적성을 다하고잇는 조선동포에게 커다란 기쁨을 던젓든 지원병제도가 실시되자 곳특별병훈련소입소(入所)지원자는 정규수속을거처속속、원서제출중이던바 마침내 십일일오후네시로써 원서접수가 마감되엿는데 그총수는이천륙백칠십삼명에 달하엿다 그리고 지원자의 각도별은 다음과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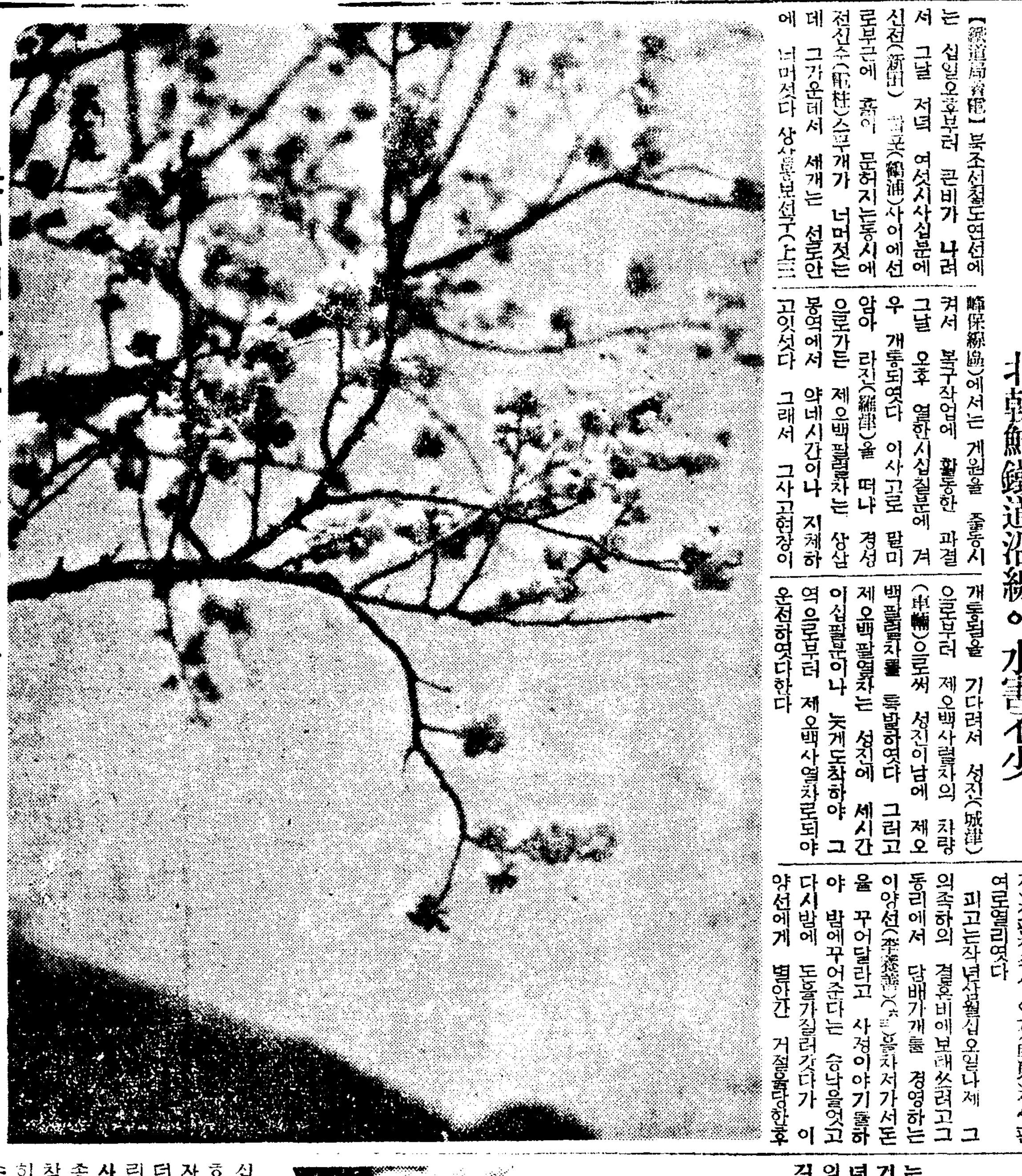
▲京畿 二三六▲忠北 二三〇▲忠南 一四〇▲全北 一〇二▲全南 五二一▲慶北 二三九▲慶南 二六六▲黃海 一六九▲平南 一二三▲平北 九九▲江原 三三九▲咸南 六二▲咸北 一六八▲合計 二、六七三

京城─群山間 電話二回線增設

체신국에서는 경성(京城)군산(群山)간에 반송식(搬送式)전화 이회선을 증설하고 사월십이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엿다 그리고 이공사실시에 따라대전(大田)로그방면의 통화는 대단히편리하게되엿다 군산간에 전화(실선(實線)에의한것) 일회선을 증설케하엿스므로

豪雨의첫消息
列車"따이아"도뒤범벅
北朝鮮鐵道沿線에水害不少

【鐵道局着電】 북조선철도연선에는 십일오후부터 큰비가 나려서 그날 저녁 여섯시사십분에 신전(新田) 령포(嶺浦)사이에선로부근에 흙이 문허지는동시에 전신주(電柱)스무개가 너머젓는데 그가운데서 세개는 선로안에 너머섯다 상삼봉보선구(上三峰保線區)에서는 게원을 총동시켜서 복구작업에 활동한 결과 그날 오후 열한시십칠분에 겨우 개통되엿다 이사고로 말미암아 라진(羅津)을 떠나 경성으로가든 제오백팔렬차는 상삼봉역에서 약네시간이나 지체하고잇섯다 그래서 그사고현장이 개통됨을 기다려서 성진(城津)으로부터 제오백사렬차의 차량(車輛)으로써 성진이남에 제오백팔렬차를 특발하엿다 그러고 제오백팔렬차는 성진에 세시간이십팔분이나 늣게도착하야 그 역으로부터 제오백사렬차로되야 운전하엿다한다



웃기시작한살구꽃 (오늘시내에서)

一審서無罪言渡 二審엔無期求刑
水原殺人强盜覆審公判

친구에게 돈을꾸어 달라다가 꾸어주지안는다고 분개하야 그를찔러죽이고 지갑을 빼서갓다는혐의로 강도살인죄에 걸리여 일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밧고 검사의공소로 복심에너머온 수원군우정면 송림리(水原郡雨汀面松林里) 임규환(林圭環)(二三)에관한 복심공판은 십이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시본(矢本)재판장주심 이견(里見)검사관여로열리엿다 피고는작년사월십오일나제 그의족하의 결혼비에보태쓰려고그동리에서 담배가게를 경영하는 이양선(李養善)(五六)을차저가서돈을 꾸어달라고 사정이야기를하야 밤에꾸어준다는 승낙을엇고다시밤에 돈을가질러갓다가 이양선에게 별안간 거절을당한후 분개하야 이양선을 미워너머트리고 칼로목을찔러 직사케한다음 그가가진지갑을 빼서갓다는것인데 재판장의심문에대하야 피고는 끗까지사실을 부인하엿다 심리가끗난후 검사로부터일심때 구형과가티 무기징역을구형하엿는데 언도는 오는십구일에 내리기로되엿다

車票사준다고 村늙은이詐欺

평안남도 안주읍(安州邑)에 사는 림씨(林氏)(六〇)라는 노파는 죽기전에시집간딸의집에나 한번다녀오겟다고강원도횡성(橫城)맛딸의집에 갓다가 안주로도라가는 길에 지난십일일오후두시경 경성역에서 북행열차를 기다리고 잇섯는데 어떤청년한명이나타나서 여러가지로 친절한이야기를 한끄테 차표를 사주겟스니돈을 달라하니 노인은 하도친절히해주는터이라 고마워서 치마끈에 매엿든 십원짜리한장이던것을 내여 주면서차표를 사달라고 매기고 금방차표를 갓다줄을 밋고잇든 것이 해가저무도록 소식이업스므로 그때야 비로소 속은줄알고 본정서원에게 애소해왓다 본정서에서는 로인을 안주로 보내주는한편 범인을 수사중이다

金福任

內外가모두肺病患者 病苦淸算코저慘劇
金剛山간男便차저가던길에旅館에드러
三母子縊死事件正體判明

기보=구일밤 부내평화려관(平和旅館)삼호실의 좁다란방을차저 두어린자식들을『동반자』로 충병에허덕이는목숨을 자기손으로끈허버린이땅에서는희유한 삼모자자살사건의 원인에대하야서는 소관종로서에서 검시한결과의 인상착의와 가지고잇든 물건을자세히 적어 시내각서와 평양서에수배하고 엄밀한수사를 계속하든중 십이일아침에이르러 그기사가 게재된신문을보고 눈물을흘리며 동서를차저온 소년의말에의하야 판명되는동시에 기구하고도 가련한 그의자살원인의 전모가 드러나게되여 관게자의 눈물을 다시금 자아내고잇다

생명가티사랑하든 두어린자식을 자기손으로 올개죽인후 자기목을 올개여죽은 삼모자는부내삼청정(三淸町)삼십오번지의오십이호 김덕희(金德姬)의 집에살든 그의동생 원자동차운전수 곽돈(郭敦)(二七)의처 김복님(金福任)(二七)과 맛아들 곽영호(郭英豪)(七) 둘재아들 영준(英俊)(三)으로 동서에 달려온 소년은 그의외삼촌인 신설정(新設町)여백칠십일번지의 홍호 김동연(金東鍊)씨의 삼남 송환(松煥)(一〇)군이다

가련한녀자의남편 곽돈은경기도리천(利川)사람으로 십여년전에 상경하야 자동차운전수로다니든중서린정(瑞麟町)일백이십팔번지에서 지금잇는일광(日光)택씨ㅣ를 경영하다가 실패를보고 수년전에는 평북희천(熙川)에잇는 평안자동차상회(平安自動車商會)에 운전수로가잇다가 폐병에 걸려 심하야그만두고다시상경하여 전기주소에서살든동 남편에게감염된 안해의병세도 날로심하야갈뿐더러 구일오후세시경에는 금강산으로 병치료를간다고 부부가어린애를다리고 떠날때 『닷든선』을 불너드니 정원이넘어 남편과는 경성역에서만날약속을하고 헤여진채 남편은동정을갈후어버렷슴으로 그길로 병치료에을야든행장모다를 죽어업의적구로 이와가티 여관의일실을 죽어업의장소로 정한것이다

金德姬女史談

김복님의 친언니인 김덕희(金德姬)여사를 부내 삼청정(三淸町)삼십오번지 의오집으로 차저드니 눈물에 말한다

『작년칠월에 그애(福任)남편이 폐병치료로 금강산에드러간후부터는 두어린아이를 다리고 내집에서 함께지내왓슨데 그동안편지나허저서 지난정월에 도라온남편과함께아이들까지 다리고 금강산으로 간다고 아호래쯤 오후한시쯤해서『닷도산』한데를 불러노찻스나 자리가좁아서 아버지는 따로전차를타라고 나가마고하고 떠난것이 이러케 되엿습니다 아이들까지 죽인리유는 부모가 다폐병이니깐 자연아이들에게까지 전염이되여서 큰아이는 벌서 기침을 콩콩하는구려 그러니깐 애어머니도들 내가죽는 날이면 이애를마저 업새고 죽어야지 아모래도살지도못할것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어떠케 눈을감는담!하고늘울면서 말하더니 아마그러케 되엿는가봅니다 운운』

北支安全農村을 今春建設에着工
建設費는百萬餘圓

북지에 잇서서생활의근거를엇지못하고 잇는것을 구제하는의미와 또아프로 조선동포의북지진출의 중발로 사변전부터 총독부에서는 북지현지당국과협력하야 안전농촌(安全農村)을 건설키로하고 사변전부터 계획중이다가 작년가을부터 구체화한것이 이번부터는 건설에 착수키로되여 총독부 지도하에 동양척식회사(東拓)에서 방금공장설계중에잇는데 그계획내용을듯건대 건대게회지 로대(蘆臺)부근이녕하현고가타(寧河縣高家坨)의삼천오백정보에이천정보는논(畓)을 고사정보는밧(田)을만들고 륙백정보는택지(宅地)등에 충당케될것이다 또수용할농가호수는일천호에 인구오천명에 매호에농토는이정보에 밧사단보 택지기타에일정보를 주게하며 농장건설자금은 일백이만륙백 구십이원인데 총독부외무성등의 보조금에 동양 척식회사 자금을 합한것으로될터이다 여기에 이수되는농민은 금후십오개년 정도로 건설비를 상환케하야 자작농을 만들도록 하려는것이며 또농경자금의 융통방법은 금융조합을 설치케하고 영농비(營農費)생활비 또는 양수비(揚水費)기타의자금을 융통하여 십사년도부터 십팔년도까지에 매년사십만원을 대부키로되엿다 농장설치는 금년중 건설공사를맛내고 가을까지에는 농민의 입부가 들어가 영농준비를하야 명춘부터 실제농사를 하게될터인데 공사때부터 조선인농민들이식시키어 공사에 종사하게한터이라한다

學園에恨품은채 飮毒少年遂絶命
入學試驗에三顚한李少年의最後
教育界에警鐘

기보=중등학교입학시험을세곳이나처보앗스나 모두실패하얏스므로 비관하고 지난구일오후 일곱시에 음독자살을 도모한소년 이해정(李海正)(一五)은 그동안 대학병원에서 치료중이엿섯는데 원체만히 먹은독약이라 마침내 지난십일일오전아홉시에 절명되고 말엇다。소년의 아버지는 광희정(光熙町) 이정목 이십번지에서 덕창초자제조공장(德昌硝子製造工場)을경영하며 집안은넉넉한터로서 금년봄에 시내 어의동보통학교를졸업하고 제일고보(第一高普)보성(普城)휘문(徽文)등 세학교의 시험을 첫스나 모두 낙제해버리엿스므로 영여의 관문을 목표하고 알뜰히 공부하엿든것이 수포에 도라갓슬뿐아니라 암담한 자기의전도에 대하야 히망을 일허버리고음독하얏든것이다

洋靴窃盜

본적을 경북 달성군 화원면 성산리(達城郡花園面城山里)에두고 시내 삼산정일정목 오번지에잇는 윤상욱(尹相旭)(二二)박련규(朴蓮奎)(二〇)김경식(金慶植)(一八)등 소년세명은 서로공모하고시내 연건정(蓮建町)일백이십삼번지 김관해(金寬海)방을위시하야 시내의 한숙여관등의신궤작을 뒤저서구두절도행각을 하다가 본정경찰서에 잡히엿는데 그들은 전후십구건의 범행사실을 자백하얏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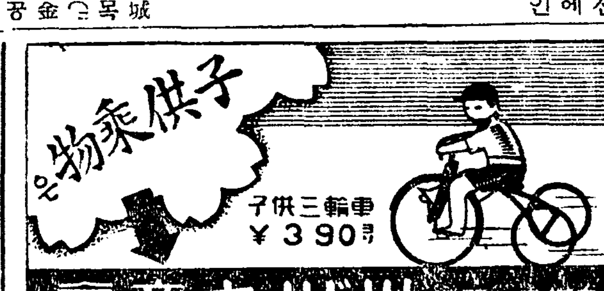
國際舞踊언과레이드 萬花爭艶恍惚境
人氣의焦點인露西亞舞踊團
今夜全東洋歌舞大會第二日

본보지령육천호와 혁신오주년을 한겹에맛는 기념흥행으로 본사동부、서부판매소공동주최、본사사업부후원인 전동양가무대회는 십일일밤 부민관(府民館)에서 첫날의막을열엇는데 멀리 『할빈』에서부터온 로서아여자『레뷰ㅣ』를 비롯하야 전프로는 만장의관중으로하야금 열광적환영을받는바되엿스나 첫날밤에 나타난 인기로보아 회를거듭할 수록 더 평장하야갈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모험도 오늘밤과 래일밤이틀동안으로 끗을 마치지 안흐면 안되게되엿스므로 독자여러분은 이기회를 노치지안토록하야 하로밤을 『엔조ㅣ이』하시기 바란다 푸로는 매일밤갈려 호화를 기하기로되여 하로밤 하로밤은 새로운흥미를 끄을게하는바이다

(사진은 예센트리레뷰한장면)

清州朝鮮人高女 十一日認可指令

총독부에 설립인가를 신청중에잇는 청주제이고등녀학교(淸州第二高等女學校)는 십일일로써 인가지령이 나와다 이는 교육령개정후 최초의고등녀학교인가신청으로 그인가도 개정교육령에 의한 고등녀학교로 최초의것인데 종래에잇서온 고등녀학교나 여자고등보통학교계통의 고등녀학교가 가지는 학교의연혁적관게가 전혀업는것이므로 이학교는실질적으로 개정교육령의 주지에의한 내선공학(內鮮共學)이실시될것이다



城南中學合格者

朴昌東 太鎭均 鄭廣洙 申鉉魏 尹炳植 田英春 姜義根 琴正淵 朴容大 崔鎭洙 李殷鉉 許浣 金永吉 李基錫 申鉉宗 李蓮貫 朴忠植 丁徹榮 權熙甲 李源英 梁六鉉 韓濟熙 兪熙宅 徐廷鳳 洪思胤 曹圭完 李東秀 鄭東豹 田炳九 兪敞相 洪榮杓 許秉 朱東錫 申泰洛 尹吉重 金鼎煥 吳翊燮 元鋼中 權紳昌 申澈雨 朴聖教 李庚星 金益柱 劉永植 趙南熏 徐丙晥 金元淑 金韺濟 柳錫永 鄭炳秀 郭永喆 姜文珦 金弘根 金炫宰 秋澤鏡 李珠春 金鎭標 李鍾麟 金命鎬 張翼煥

色鉛筆

철순이 철신넘어보이는 하얀영감님이 만나는 그때마다 언제보아도소란스러운전차간에 조용히 안저서 책읽기에 여념업는것을본다▲보매일쪽이미국가튼곳에 갓다왓슬는지 읽는것은흔히 영문신문이나 영문서적이엇다 사람된품이본대청초한데 책을들고 끔작업시 안저잇는그태도가 또한거울가튼 마음을 가진듯십다▲그런데 근자에는 이영감님의읽는책이 달러젓다영문신문 대신에중국말독습서를 펴들고 입속으로외이고 또외이는것이다 미간에 떠오르는표정은 다시 날카로워젓다▲청년、장년이 그득히잇는데 영감님이 아니면 중국에진출할자 업겟다고 그래서 중국말공부를 다시 시작햇슬리만무하다 ▲그러라 배움의길사업의길 수양의길은 본래가 끗업다하거니와 그길의 전진에는 끗업는지식욕에서부터 시작되고끗업는 지식욕은교양으로 척미에서 출발한다▲젊은자여! 이영감님을 보는가!

天氣豫報

豫報 今夜와 明日은개이겟다

昨日最高 一三度九
同 最低 四度
今朝最低 三度三
今日正午 十度八

今夜의라듸오

▲六時조흔音樂 洪蘭坡▲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六時三〇分講演 金晉燮▲七時三〇分講演 金善琪▲八時野談大會 金星愛、申靑君、申鼎言

或る映畫監督の一生
新人 エドモン・ド・グレヴィル監督
フランソワーズ・ロゼエ主演
ロジーヌ・ドレアン
ジャン・ギャラン
愈々明日十三日封切
佛ACE映畫 東和商事提供
映畫界とは果してお伽の國だらうか?夢の工場だらうか?

巨人傳
東日・大毎 國際ニュース
朝日 世界ニュース
若草劇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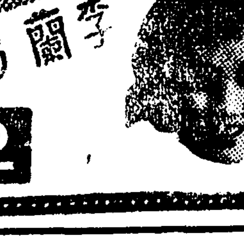
果樹苗木 農産種子
(定價表進呈)
平壤府船橋里 山口農事部
電話四八一 振替京城一七五二四番

日本勸業證券株式會社京城支店
本店 東京 日本勸業銀行構內
いま債券は高利廻
利附四分利債券は三分九厘、復興債券の償還期近いものは三分五厘位の利廻にて絶好の投資物
●割引債券は今買って面白い

回別	仲値	回別	仲値	回別	仲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證券擔保 簡易貸付
利息 千圓以上 日歩一錢六厘 百圓以上 日歩一錢七厘 百圓以下 一圓ニ付日歩二毛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三十八番地
振替京城二九七・電話本局四四五四

流行歌 OKEH 12113
산호빗 하소연
李蘭影



오ー케ー레코ー드

商標 千 都 고추가루
釜山府草梁町 金子壽商店營業部

京城女子醫學專門學校
豫科生徒募集 約六拾名 入學試驗五月三日ヨリ

京城中等學院生徒募集
各科五十名、詳細來問、開講四月廿日豫定 學則要三錢切手
中等科午前、午後部、中等豫備科、午前、專攻科午後(英數國漢)
詳細ハ京城府東崇町一二九番地本校事務所(電光二〇七番)ニ來合ノコト

協實商業專修學院生徒募集
入學資格─普校卒業者 無試驗 募集人員─一年百二十名二年若干名
出願期日 四月十八日迄 特典─協成實業學校編入 京城府栗開町一八

社員招聘
事務所長、外交社員
年齡二十五歲以上實務家 固定給料外多額の手當有り 駐在地は西朝鮮に限る
平壤府南門町九四 昭和生命保險相互會社 平壤營業所

家具
事務用椅子卓子 西洋家具
本町三丁目 根本商會 電話本局②五〇九一

技師募集
優遇ス 希望者ハ面談
大島町三五 電話龍山一三二一番

朝報案內

山口屋小動物園

日英米佛特許
パイロットインキ
高級インキ

日本特許 八八八四七號
英國特許 三八七八四四號
米國特許 二〇〇八六二〇號
佛國特許 七三二五七〇號
2オンス入 ¥.20

우리차지

산술풀기

창남이「이 산술문제 알아맞혀도 이상해 여기 사과 여덟개가 잇는데 아버지、어머니、누나、동생한테 노누면 한사람에 몇개식 도라가는가 햇서」

누나「한사람에 두개식이지뭐냐」

창남이「그건 나두알어 그러치만 내모가치가 업서지니까 말이지」

(글쓴사람 전유성)

家庭

남녀간의문제는 책경 봄에 이러나

남편의호주머니를가끔뒤저볼일

마음못노흘중년신사

인사상담소가튼데서 취급하는 리혼、연애관계가튼 모든남녀문제의 발생을조사해보면 계절적으로보아 바로이맘때가 제일만케 드러나잇습니다。즉봄은남녀간의 문제를 이르킬 기회를주기쉬운 철이라고 말할수잇는데 작년봄때쯤해서 배양된 사실이 반년이나 일년뒤에가서 문제되도록까지 발전되야인사상담소로 쪼차가게까지 된것이라고 볼수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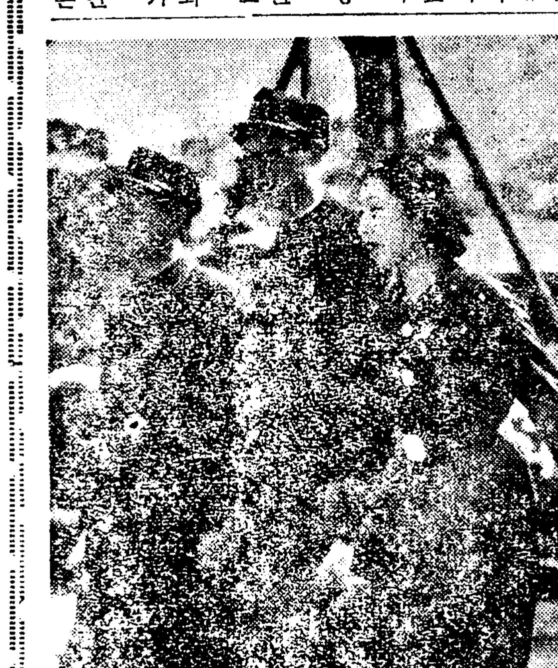
그러면봄에는엇재서 사건이 생기기쉬우냐하면

1、사람도 금수초목과 맛찬가지로 봄은성장기요 선스정으로도 앙진하는 계절이것

2、치운 겨울로부터 해방되어 꼿구경、들노리에서 남녀가 접근할기회가만흔것

3、따라서 술을먹는 기회도만코유리적관념이 깨저 양전하든 사람까지 부바해지는수가 잇는 리유를 들수잇습니다。

젊은청춘남녀를 가진어버이、또는 안해의처지로서 남편이나 자식에게 그런잡뽀이 업도록하기위해서는봄철을 가장경계하실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수집본능(蒐集本能)이라는것이잇서 차ㅅ집이나 빠ー의 서냥곽이나 자기조와하는 사람의 사진가튼것을 몰래 지니기조와합니다 그런즉 요새는 남편이받은게도라오는수가잇거든 [illegible] 의심스러운것을요 [illegible] 롱대하는것은 삼가[illegible] 으로는 정거를 기술[illegible]하십시요 각금호주머니의 지갑속을 뒤저보시는것이 조켓지요。외시이상스럽거든 어데서누구하고 노랏수? 하고[illegible]이아니라「내가도리어인지잇서루 당신다니는데를 환히 알고잇소」이만콤 [illegible]해서 꼬어밧정해식는게 조흡니다。

그래도 고치지안커든 소위사탐이나 친구되는분에 부탁해서 충고를 하도록하십시다。

엇던회사원의 안해는 남편의호주머니를 살펴주 가에의서냥곽이나오드랍니다。그래서 서냥곽을 꺼내여 다른데 숨겨두엇드라나요 이러케 여러차례를하루 남편이 그제서야 깨닷고 켕겨서 그버릇을 그만두드랍니다。불쾌한태도를 보이다거나 며구나 물고뜯는 전술을전하에납봇치입니다 부부는 서로의허물에대해서 일종친절을다해서 참다운 반성을 기다려야 할것입니다 봄ㄷ 중년남자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인즉 가정을 직히는부인은 남편이 다른데마음이 가지안토록 가정을유쾌하게맨드십시요 희생들도필이면 용ㅅ돈ㅅ는것등으로들과 특히이성과의 면지내왕가튼데주의해서 일울미연에 방지하도록하십시다

비단빨래에는 비누가나빼요

그대신쌀겨를씁시요

명주빨래하는데는 비누를 쓰면 감이 못쓰게되고 그뿐만아니라 빗갈이 빠저서 재미적습니다。

그러면 비단빨래에는 무엇을 써야 조흡니까。여기에 대단히 경제적이고 또 감에 썩조흔세탁제(洗濯劑)를 소개하겟습니다。

쌀 겨‖

비단빨래에는 쌀겨가 제일입니다。이겨는 정미소가튼데 잇는데 쓰는방법은 헌겁주머니에 너허가지고 그것을 따스한물에다대고 주무르면 뿌연물이 빠질게안입니까。그물에다 비단이나 명주를빨면 때도잘지고 감도 상하지안코 대단히 조흐니 어디한번 시험들해보시기 바랍니다。

풀‖

일본내지에서들 옷에멕이는 (후노리)란 풀이 잇습니다。이런것은 상점에서들 파니까 사다가 따스한물에 집어너흐면 죄다 녹지안켓습니까。

다 녹은담에 한번끄려가지고 물을 적당이타서 그물에 당거가지고 가만가만 잡어빨면됩니다。그런데『지리멘』가튼것이 제일조습니다。

진짜빠ー다 골르는법

식료품점에서 파는 빠다가운데도 진짜가잇고 또가짜가 잇습니다。

진짜는 우유에서 거더낸게지만 가짜는 다른것을 석거서만듭니다。

이것을 구별하는방법‖

진짜는 물에다 녹여보면 거품이 일지만 가짜는 거품이 일지 안습니다。

백일해에대하야

어릴수록 잘걸리나 예방주사 마지면안심

(三) 趙漢英

또한가지 이기침의특증은보통감기나 다른병의기침은 깁히 잠드러슬때에는 덜나지만 이백일해기침은 밤에 곤히자는동안에 더욱이 새벽녁에심히 기침을하기때문에 알는아이는 잠도편안히자지못하고엽헤서 자는부모도 가끔 놀라깨게됩니다 이와가티여러날 기침을하기때문에 얼굴과 눈두덩 또는입술이 부석부석해지고 혀속기께가 패는수가만습니다。

우에말슴드린것과가튼 괴로운기침을하는 동안은 삼주일여상 육주일 즉심하면 한달반동안이나되는데 그다음부터는 기침도 차차경해지고 기침하는번수도 차차줄어서 이주일내지 사주일동안에 나어갑니다。그러치만 이때에감기에걸리면 또다시 심한기침을하게되는수가잇습니다。

이와가티 백일해는 오래걸리는병이며 다른병이 겹치지안코 무사히 알코난다고해도 기침하기 시작해서부터 육주일내지 십이주일 즉 오래알는 아이는 큰 석달동안이나 알습니다。그러므로 며칠동안 약을먹이면 낫켓다든가 또는 주사멧번만마치면 나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현대의의학이 기술도로 발달되여가지만 아직까지는 며칠동안이란는 짜른시일에 치료할수는 도저히 바랄수업는것이고 결국오랜시일을 경과해야 낫는것입니다。가령 맷달동안에 백일해를 고첫다하면 그병은 백일해가아니라 다른병이엿슬것이라 단언할수가잇습니다。

이러케 오래걸리고 또아이가 어릴수록잘걸리는 병이기때문에 여러가지의 다른병이 겹처서 더오래걸리게된다든지 또는 위험하게 될수가 만습니다。다행이 다른병만 겹치지안는다면 대개 무사히 경과할수잇습니다。그러면 어떤합병이 겹치기 쉬운가에 대해서 대강말슴드리겟습니다。

흔히 병발되기쉬운병은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과 기관지폐염 입니다。백일해의 보통의경과로는 열이나지 안는데 열이난대야 삼십칠도사오분정도의 경한열에지나지안습니다 그러나 삼십구도내지 사십도이상의 노픈열이나고 기침이 더심해지면서 숨이 몹시차하고 일반상태가 위중하게되면 몬저 폐염이 되지안헛나하는 의심을 갓게됩니다。만약 폐염이되엿다면 마진(홍역)앓을적의 폐염과가티 극히 위험한것인데 알는아이가 어릴수록 위험률이 노파서 만한살미만의 어린애에게는 폐염이 [illegible] 하게됩니다。이외에 폐결핵、메독(梅毒)파서결핵 또는 그외의 결핵성병과 마진、디푸테리、유행성감기가튼병이 겹치기쉽습니다。

또어떤때에는 심히 기침을하다가 경끼(驚氣)를하기도하고젓먹이아이는몹시기침하다가 숨이막혀죽는수도잇습니다。또펀드믄일이지만 뇌염(腦炎)이겹처서의식이업서지고 사지가 마비되는수도잇스며 뇌일혈(腦溢血)즉 뇌속의 혈관이 터저서 죽는수가잇습니다。또오래동안 심한기침을하기때문에 배꼽에나 자가미께 탈장(脫腸)이되는수도잇습니다。대체로 말슴하면 체질이 약한아이、영양이 나뿐아이 또는 난지 만이개년이내의 어린애는 다른병이 겹치기 쉬운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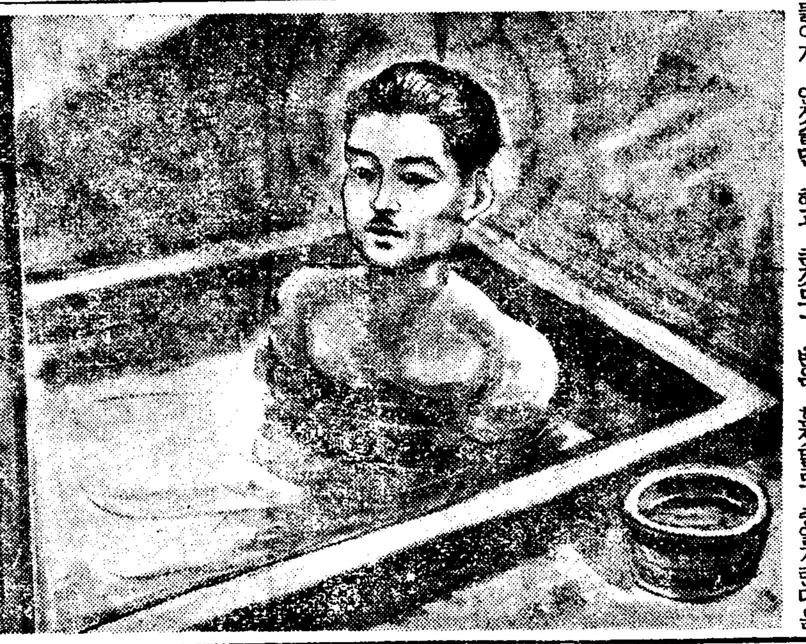
하여간 백일해가위험한병이라고하는것은 첫재 병의경과가 너무오래인것과 둘재로는 아이가어릴수록 걸리기쉬운까닭입니다。이병의 사망률을보아도 아이가 어릴수록 사망률이놉흔대 통계상으로 보면 [illegible] 백명중에 이십륙명이죽고 만한살이상 만두살까지의 아이는 백명중에 염명이죽습니다 그러나 만이세이상 만오세까지의아이는 백명중에 두명쯤 죽고 만오세이상의 아이는이병으로인해서 사망하는 일이 드믐니다。

그러므로 젓먹이 아이와어린아이를 두신 가정 에서는 극히 주의해서 될수잇는대까지 이병에 걸리지안토록 예방하서야겟습니다。그러면 어떠케 예방을 해주어야 할지를 간단히 말슴하겟습니다。

백일해에 대해서 제일 완전한 예방은 백일해환자 겨테 가지안토록 하는것입니다 만약 집안에 백일해 환자가 생겻슬때에는 한집안의 다른아이에게 전염되지안케 서로가까히 하지안토록 해야겟습니다。또 유치원이나 소학교에 단이는아이가 이병에 걸렷스면 기침하는동안은 유치원이나 소학교에 보내지말어야합니다。

長篇小說 愚氓 【6】

朴泰遠 作　洪祐伯 畵



溫泉場小景(二)

저녁으로 만두를 한그릇 시켜다 먹고 식후에 즉시 목욕이 몸에 해로우리라고는 생각하면서도 위선 언몸도 풀겸해서 학수는 곳 욕장으로 갓다

문을 드윽 열고 들어서니까 그곳은 탈의장(脫衣場)인듯시퍼 못에『단젠』(丹前)한벌이 걸려잇다。조선려관이라、이러한 의복의 준비가 잇슬리 업고 잇다면 물론 자기에게도 차례가 올것이다、이『단젠』은 욕객(浴客)자신이 가지고 온것인듯십다。충게로 서너층 지하(地下)로 나려서 야만 들어가게된 욕실안에서 연해 흥겨운콧노래가 들려온다。

여편 마당으로 면한 유리창이 들이 버려저、그리로 찬바람이 암만이던 불어든다。학수는 옷을 벗는동안、웬사이 업시 덜덜덜 떨엇다。

충게를 나려 온천에를 들어가 본다。학은 면새이 좋을짜 노핫스나、적으것은 그저 호자 들어가 안젓슬만 하고、큰것도 세사람이면 꼭 차게다。

굿촉하게 유리창이 하나 잇스나 그안은 이미 어둠이 기여들고 잇섯다。

며칠전에 백천온천에서 화씨 구십도라는 물에 들어 갓다온 학수에게는、이곳 물이 좀 찻다 시원섭섭어 적은 학에다 손을 잠거보니 그물은 좀더 온도가 야튼 모양이다 그는 이내 단념하고 코미테 목당수엽을 걸은 사나이가 들어 안즌 큰으로 들어가 두다리를 쭉욱 뻣고 석양이 새여들어오는 노픈 창을 치어다 보앗다。

학수가 욕장에 들어오던 때부터 흥겨웁게 하던 콧노래를 끄치고 한참을 유심히 그의엽얼굴을 살펴보던 사나이가 마치내 입을 열어 말을 건넨다。

『이물이 이게 외기가 차니까 필시 물온도두 아마 찬게조?』

『글세요……』

『이게 보통때 가트면 뜨거워서 저권 물에나 들어갓댓지 이권엔 못들어 와댓죠。』

『…………』

『이 원천이 이게 피부병 위장병에 특효가 잇다죠。허지만 아마 원전은 모두 비슷비슷할걸요。』

『그럿습니까?』

『여긴는 처음 오시나요?』

『네!』

그사나이는 다시한번 학수의얼굴을 또더보는 모양이드니

『서울서 오셧습니까?』

바루 은근하게 뭇는다。

『네ー。』

하고 대답하니까 그는 직시

『어이구 멀리서 오셧군요。』

그리고 다음에 뭇지도 안흔 말을

『나는 안악(安岳)삽니다。안악사는 최건영(崔健泳)이라고합니다。』

하고 아주 통성명을 한다。그래 학수도 비로소 그에게로 고개를 돌리고 자기 이름을 알려주지 안흐면 안되엿다。

『서울서 바루 이리 오셧습니까?』

『아ー뇨。해주를 들러왓습니다。』

『무슨 볼일이라도 엇스서서。』

『아닙니다。그냥 놀러나온길입니다。』

최건영이라는 사나이는 무엇을 좀더 물어볼듯 하드니 그냥 바그로 나가 수건으로 몸을 닥그며、

『그저 겨울엔 원천이 제일이죠。』

받은 호잣말로 중얼거린다음 [illegible] 라가기에 미처、

『혼자시거든 놀러오십쇼。오호실에 잇습니다。나두 혼잡니다。』

그러한 말을 하엿다。

여관에『사흥실』은 업슬께니까 그러면 학수가 들어잇는방 바른편이 바루 오호실일 것이다。여요도리하고는 물론 정식으로 인사를 교환하지는 안햇스나、저편에서는 객적게스리 알은체를 하려드는 터에、이제 또、이 최건영이라는 사람이놀러오라고 까지 말을 하니、이호실、오호실 두방 틈에가 끼여、자기는 조용한 시간을 가질수 업스리라고、원악이 남하고 교제를 조화안는 학수는 마음이 약간 우울하엿다。

그래 저녁을 먹고나서도、방안에 혼자안저、가지고온 잡지를 뒤적어리며、최건영이란 사람방에 놀러갈 생각은 하지도 안코 잇스려니까、장서방이 문을 열고 고개를 데밀며、

『선생님。괴스럽지만 바뿌시지 안커든 놀러오시라구요。』

한다。기다리다 못해、그럼 독축이 왓구나——하고

『누가요?』

하고 짐짓 물으니까、그는 뜻박게도

『저ー 이호실 손님이요。』

하고 턱으로 여자방쪽을 가르치며 음흉스럽게 실을 벙글 웃는다。학수는 저모르게 얼굴을 붉히며、그마음이 불쾌하엿다。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電話本局②二二六一 振替口座京城二二○五番

株式會社 漢城銀行 頭取 林茂樹

支店 出張所 京城南大門、同東大門、同西大門、同本町、水原、大田、大邱、釜山、開城、延安、海州、長淵、平壤、平壤大和町

(注文次第即日發送함)

性器強大藥

早漏防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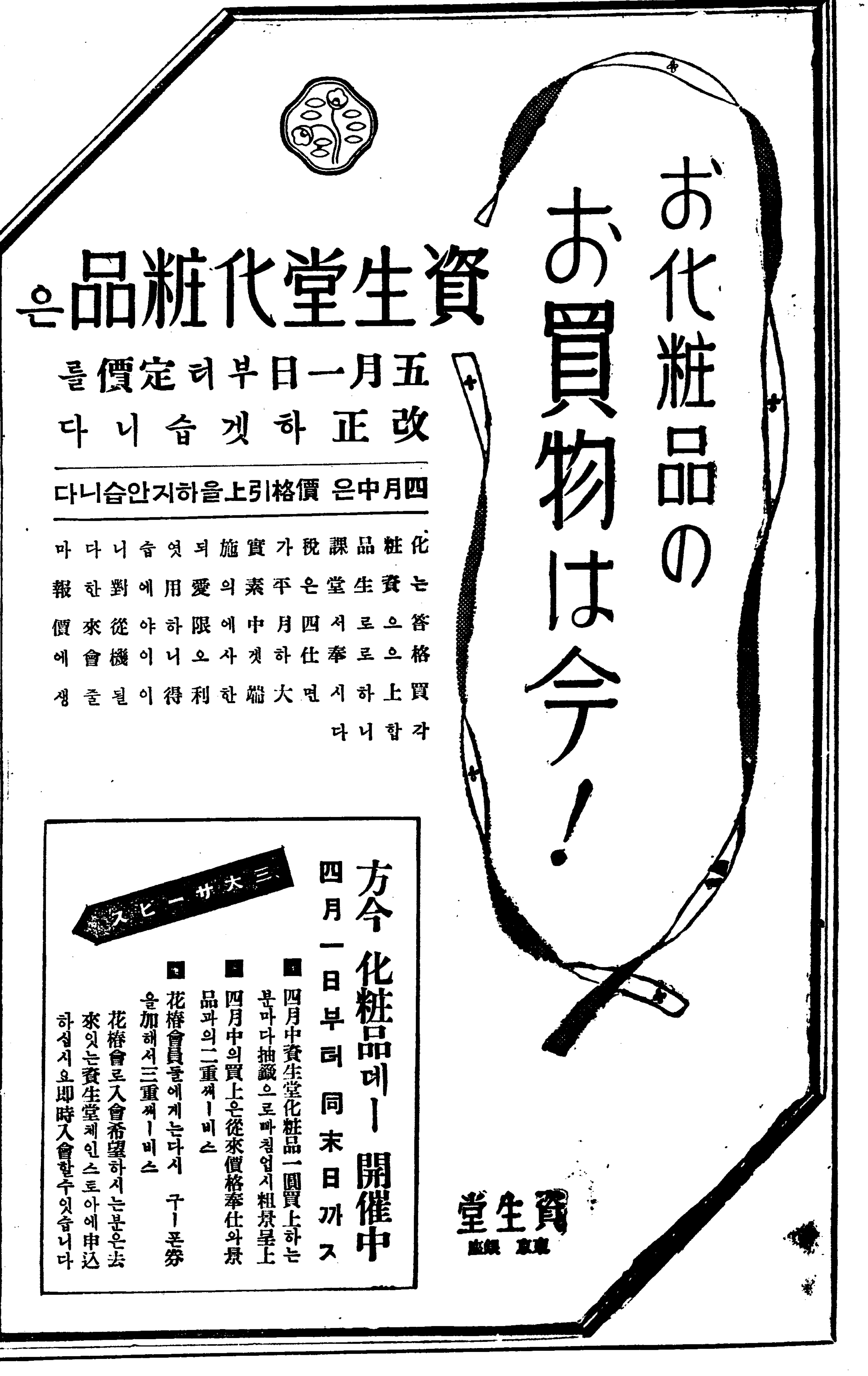
太星莊藥品部

(信用本位注文은本房으로)

釜山府大橋通一丁目六五

本報慶南支社

電話二八九七番



宿醉 ノーシン

四月十一日부터十四日까지 (夜間만)

二世 天勝一行大公演

◇特別豫告◇ 四月十五日부터 ▼靑春座上演劇▲ 李孤帆 作「해바라기」四幕

晝間…十一時半始映 夜間…七時正刻開演

東洋劇場

仁川支局電話開通 電二九○

全朝鮮對抗蹴球

懸賞規

一、本紙面에記入된 各都市의蹴球團體는 各各其地方의精鋭로만 組織되엿이온데 第一回全朝鮮都市對抗蹴球大會에서는何地方팀이優勝하겟습니가?
二、優勝하리라고生覺되는都市名과 本紙面全部의商品名又는商店名을 官製葉書에記入하신後 京城府太平通朝鮮日報社廣告部懸賞係로보내십시요
三、投票締切日은 四月十五日 (但四月十五日附消印이잇는

賞

一等(一人) 精工舍腕時計一個
二等(三人) 파이로트萬年筆又는세일러萬年筆一本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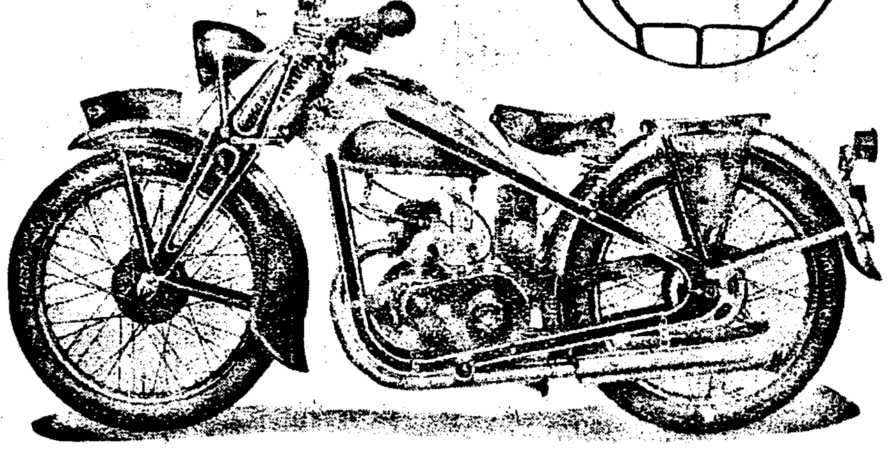
出場都市

大邱 淸津 釜山 鐵原
平壤 廣州 京城 新義州

アサヒ 軽オートバイ

價格—最低•經費—最小•操縱—容易

咸興



標準仕上 ¥445•00
特別仕上 ¥49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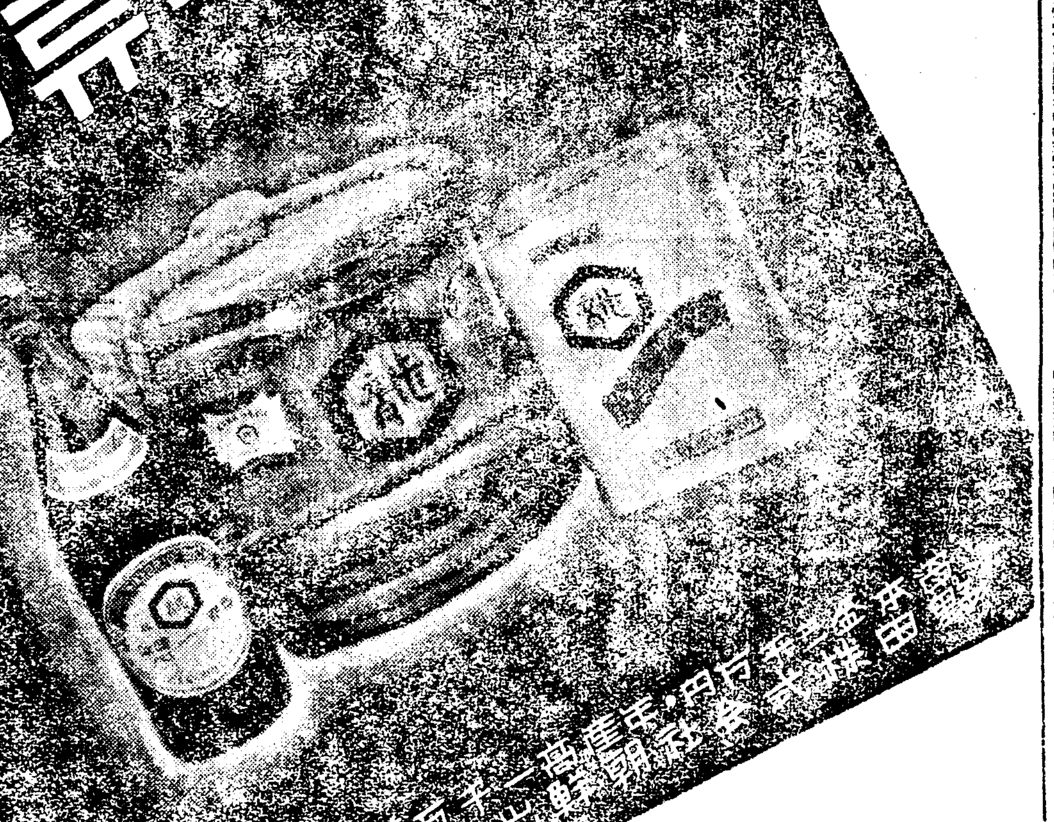
(カタログ進呈)
各地有名自轉車店にて御照會を乞ふ

京城南大門前(ツヅキビル内)
アサヒオートバイ會社
電話本局(2)2311•2310番

平壤

京城鍾路
大昌洋靴店
電光③七四四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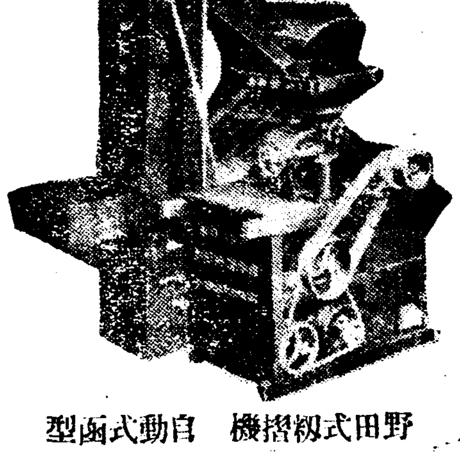
天下一品
龍
ベスト一醬油
釜山



白馬
淸津
여러분의
高級社交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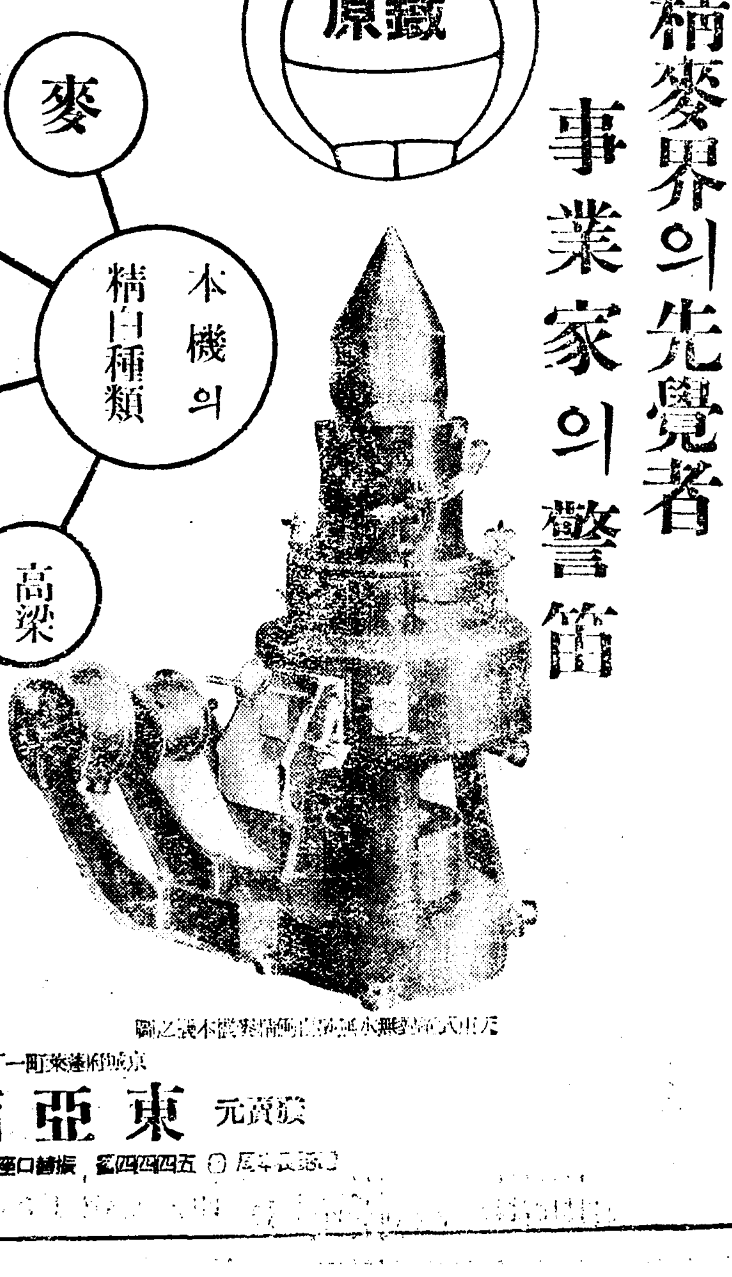
京城公平町(和信引)
電光 三六〇〇

專賣特許新案特許
商標 天東式紳無水精麥機 登錄
野田式農機
朝鮮農會御指定機!!
鐵原
精麥界의先覺者
事業家의警笛
本機의精白種類
麥 米 粟 高粱
動力界의革命兒 農村振興의羅針盤
特約店募集 (型錄進呈)
野田式의下命은 中央代理店으로



野田式籾摺機 自動式函型

ノダ式石油發動機



京城府蓬萊町一丁目二七 (京城驛前)
發賣元 東亞商事農具部

總賣出 二十五萬圓
大邱
新春大景品附大特賣

虛弱體質을改造하고
精力과勇猛을創造한다
百補丸은봄철에服用하시라

해마다 봄철에 百補丸을 服用하는분은 恒常元氣가 旺盛함으로 陽氣不足 肺弱 神經衰弱 消化不良等의 모든 虛弱症을 모르고 精力絶倫하야 씩씩한 靑春의 所有者가 됩니다

今年도 잇지마시고 百補丸을 服用하시요 봄철에 百補丸을 服用하면 藥効도 잘 날뿐 아니라

朝鮮初有의 大景品으로 발 재봉틀、金즘時計줄소、三輪자개장、自轉車、自鳴七宝蘇床品 等을 타게되오니 勿失好機!

只今곳百補丸을쓰시오

藥價 一劑 十圓

京城府堅志町 五一
平和堂株式會社
電光六三二番
振替五番

世界的强壯劑 百補丸

三仙岩

新義州

醫藥界에新貢獻
最良砒素驅黴劑
ネオゼンバルサン
(네오젠발산)
(金剛)

本品은 弊所에서 多年間研究의結果 이번에 完成한 砒素驅黴劑(俗稱六〇六號)입바 嚴密한 化學的檢査와 動物試驗並人體試驗을經한後 日本藥局方試驗에 合格한 最良品으로 品質至純 副作用絕無를保證합니다

適應症
各期黴毒、潛伏黴毒、變型黴毒、神經黴毒、鼠咬症、淋毒性睾丸炎及副睾丸炎、腎盂炎、膀胱炎、再歸熱、마라리아、鼠熱、天疱瘡、肺壞疽、小舞蹈病、其他스피로헤-타作諸疾患

(有資格者에게試供品進呈)

製造發賣元
金剛製藥所
京城府鍾路壹町二ノ五七
電話本局②四九八一番
一三五三番
一七〇一番

自轉車時代는이미지낫다
只今부터는オートサン의天下！

光州

(東京遞信局使用車)

¥260.00

1ガロン	130哩	(朝鮮里約600里)
1キロ	3厘	(消費量)
スピート	45キロ	(百餘里)

市內外交員募集

一、大京城市에オートサン號自動自轉車가出現하엿슴니다 輕快한輕音과함께疾走하는愉快한光景을보십시요
二、오—토바이로나 自轉車로나 自由自在입니다
三、運轉은至極히簡單하고 燃料經濟에適應하는 오—토바이올시다
四、價格은 絕對保證付로販賣하오며 稅金은自轉車同等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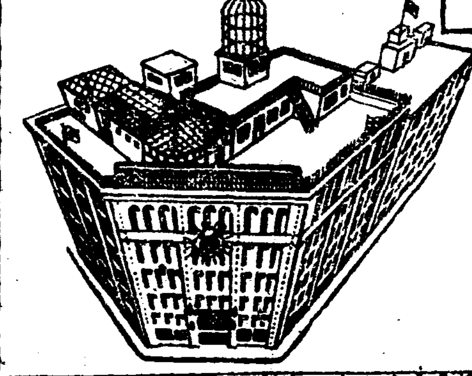
地方注文에는運賃弊店負擔迅速酬應하나이다

株式會社オートサン製自轉車オートバイ製作所 朝鮮總代理店
オートサン商會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七〇
電話光(3)四八〇番 ● 振替京城二九一三八番

和

鎭南浦

花節用品賣出



花節食料品特賣	(地下食料品部)
피크닉크用品賣出	(同)
花節쇼—ㄹ·파라솔特別奉仕	(一層洋品部)
花節衣裳次特價賣出	(二層布木部)
花節婦人·兒童雜貨大賣出	(三層洋品部)
優秀小型카메라宣傳賣出	(五層寫眞機部)

十七日……二十一日
交通安全展覽會 (於七層갸라리—)

春期旅行에는和信內뷰—로—·트리스트—뷰—로—를利用하세요

(十八日은定期休業)

京城
和信

京城

◎ サンベルト．エレベーターベルト．附屬品壹式
◎ ボールベアリング．OKS割プーリー．メタル シヤフト 其他傳導用品壹式
◎ 南本式縄仕上機．藤井式自働送込脫穀機 ケー大籾摺機．三德米搗機．三菱．日立モートル ベルト．農具．傳導用品 專門店

株式會社 サンエス商會
京城驛前
電話本局長一七四九·四八〇六
出張所 大邱·平壤·奉天

勉學の協力には一使ふ程書きよくなる
アテナ萬年筆

廣州

新學期景品付特賣 3月20日より 4月30日まで

完全自吸式
アテナ萬年筆
Y2.00以上

右期間中アテナ萬年筆御買上壹本毎に丸善シャープペンシル(Y.70)一本呈上——

●ネーム彫刻無料●

京城府·本町二丁目
丸善京城支店
電話代表本局(2)6141·6146

—大日本蹴球協會公認球—
WALES
大毎主催全國中等學校
蹴球選手權大會使用球

安岳

朝鮮神宮奉贊蹴球大會
全鮮綜合選手權大會
—指定使用球—

全鮮都市對抗蹴球大會
御使用の榮光に輝く
ウエールス號
最高の標準試合用球

タチカラ
東京 大阪 滿洲

タチカラ運動用品株式會社
京城營業所
京城府明治町二丁目

運動用品は (TACHIKARA) 印を御求め下さい (TACHIKARA) 印は全鮮著名運動具店で販賣して居ります

市都對抗蹴球大會
定
品 三等(十人) 四等(五十人) 朝光一冊式
名 咸興 光州 鎭南浦

田禹治의傳說

口碑의金樸說話 (二)

李殷相

三、死後의空棺

田禹治가 信川에서 歿死하엿는데 太守가 사람을시켜 그屍體를收殮케하엿더니 後에 親屬들이 그를 移葬하려고棺을열어보매 다만 空棺이오 屍體는 간곳이 업서젓섯다 이엇다。

四、死後의借書

五山車天輅가 그의著 五山說林에 이러케 적어둔것이 잇다。

『내아버지가 말슴하기를 하루는 田禹治가와서 朴士翔의詩集 一帙을 빌려달라하기로 빌려주엇는데 後에드르니 그사람이 죽은지 벌서 오래되엿더라』는것이엇다。

이와가튼것이 田公의異蹟이어니와 文獻에 적히지 아니한 說話들 이곳에서들은것이 잇는바 그것은 『金樸』이 야기다。

五、白玉樓金童보

그가 中原天子에게가서 玉皇上帝의 命令을傳하고 白玉樓에 金童人보를 만드러 어게하엿는데 上樑하는날 그가 다시와서 金童子마리를지 켜 金童人보 兩端을 물고 나라가게하면서 自己도 다름으로 날아가는지라、天子가 甚히 바라보라하엿더니 楊州쪽으로 가는모양이라하야 天子가 田禹治를 찻게하므로 그로하여금 金童人보를 잡수업는 고 이곳 楊州川 江물속에 먼저버리고 말엇다。그래서 지금도 이냇물속 어디에 그 金童人보가 들어잇다고 傳하는것이다。

이가티 그의 傳說은 文獻으로도와 口碑로 傳해온 (慶南蔚山郡下北面 徐承俊氏(七○)口述) 아니라 所謂 『전우치전』이라하야 小說化되기까지한것이다

學術이 얼마나 척구를 엇지못하고 마는것은 ... 그중에는 너무나 ... 要素가 만흔까닭도잇지만 한편에는 그들의苦鬪와 洗練된 ... 에대해서 讀者가 理解가업거나 理解를 가지려고 努力하지안는까닭에도잇다

鄉土文化를차저서 ㉑

學藝

現代와詩의르넷상스

―文化部面과그것의享受範圍―

③ 金起林

詩의 意味에 詩人의 志向이 참여할餘地가 잇다고하면 그것은 『모랄』일수잇고 그런限度안에서는 詩의『푸로파간다』性은 認定된다。勿論모ー든詩가『푸로파간다』여야할것도아니고 그런것도 아니지만 如何間에 詩의『푸로파간다』性은 可能한것이다 그러치만 그作用은

(詩) 人의 全人格을 通하야 그 『모랄』이 灼熱하고 또그것이 詩가 讀者의마음에 이르키는 具體的 全體的 直接的인 反應을 通해서 感受될 때에만 비로소 詩의 價値의問題와 相關한다。

여기에 우리들이 特히 警戒해야할 詩에대한 第二의 그릇된態度가 잇다。即 統一된 詩的効果를考慮하는것이아니라 詩의 散文的意味를 通해서 推理되는 價値로 論理的으로 推理되는 詩人의志向을가지고 詩價의 基準을삼으려는태도가 그것이다。처음에通俗가 先覺들사이에 行해지는것과는 달라서 두번재解는우리들 젊은詩人사이에 아직도 상당히 널리뿌리를 박고잇는듯하다

더욱생각할것은 그러케 讀揚되든 『모랄』이란것을 눈여겨보면 우리들이求하는것과는인연이멀고 우리들의當面의 要求에는 닷지못하는한낫感傷에 지나지안는때가만흔일이다。이러한感傷을『모랄』로 아는患者는 그것은 벌서通俗雜誌附錄에 하도만히실린 家庭療法에 지나지안는것을 알고 도리혀 冷淡해진다。

◇

우리는 여기서 다시 英佛두나라詩壇이 大戰以後거러온길과 또 이뒤의

(發) 展을 간단히 바라 보면서 그속에서우 리에게 참고될 몃 개의問題를 집어보는것이 매우 도움이 될것갓다。

大戰이 끗나고 뒤를이어 二十年代의 約十年間은英國도『방자망·크레뮤ー』의 不安時代엿다 그동안의 英詩壇에는 누구나아 다시피『T·S·엘리엇트』가 君臨하고잇섯다。絶望과 敗北과 虛無와 無力과ー그러한것이 士 色調와 함께 詩數거리를 翔 外고잇는 움마키는時代엿다。

그러나 그것은 決코 사람사람이 언제까지고 견듸고잇슬雰圍氣는 아니엿다。三十年代의 開幕과함께 이『荒蕪地』에는『再生』의 意識이 움지기기 시작 햇다。詩人의關心은 勿論 詩가 文化의 어물다운ᄒ임에도 不拘하고 그들에서 시들고잇는일에 향해서 等閑할리가업다。그러나 이러한文化의 不均衡의校正은決코 詩혼자의 힘만으로써 될일이아니고 그보다도 실로 그地盤이 되고잇는 삐뚜러진 文明그自體를 訂正하므로써만 이루워질것을깨다러다。그리해서 그들은行動의

(目) 標를 發見햇고 希望잇는行動속에 情熱을 부을곳을차지 다。이와前後해서 佛蘭西에서는 "슈ー르레알리스트"의 分裂이 잇서서 그한쪽가은 亦是 行動의世界로 다타낫고 또한편에行動主義의 提唱이잇섯다。마치歐羅巴의詩人들은 中世末葉近世初頭처럼 새로운希望에 祝福되여 興奮한듯시퍼젓다。

그러나 昨今 그들의 祖國과 近隣에 방울새고 나면 뜻바게 展開되여 가는 새事態는 果然그들의 豫期를 배반하고 잇는것이나 아닐가? 미들수업는現實。그들의 希望을 도모지 保證하려고 하지안는 未來。이윽고 그들의 行動自體에 대한熱이 現實의 찬바람을 마저서식어가고 또그들이 民衆에게 約束할"모랄"에대해서 스스로信用하지못하는 悲劇이 닥처오지나안흘가? 그들의아페는 또다른"밤"이 가까워오는듯십다。그들이"새벽"이라고 미든것은 혹은"밤"의 幻影이엇갓다。

◇

이러한 試鍊속에서 歐羅巴의詩는 어대로갈가?실로

(劇) 的興味조차 끄으는 問題다。아래서잠간 우리는 이에대한豫想을 시험해보자。

大戰以後의詩(乃至는모ー든藝術의部門)에"슈ー르레알리슴"이 기친動搖는 상당이 深刻한것이엿다"슈ー르레알리스트"는사실로 너무나 지나치게 만흔現代人의 意識대문에 압어고 또現代의 知的階級의 苦悶을 가장흉으로써 당한사람이다。『살바도르·달리』의 그림아페 섯때 우리는 거기서 울려나오는 너무나 悽慘한 呻吟소리 때문에 毅然해진다。그들의 作品을 읽거나 보고는 그뒤에남는 너무나 무거운 絶望대문에 氣絶할상시픈 때도잇다。그들의

陽春風物詩

●白髮嘆

장덕조

그러나 두려운 생각이 내마음을 어둡게한다

아름다운 꼬즈로 장식된 들과 산과 시내사이

어느곳에나 솔틈이 끼치는 無心함이 나를 흘겨보고

人類의親友ー 나는 슬픔에 겨워 얼굴을 돌립다。

ー平ー쉬킨『農村』抄ー

버들가지에 물이 올랏습니다

글세 마고자등이 이러케도 무겁지안습니까

땅파는이여。옛날 나물캐는 처녀를 두근거리며 기다리든 木棚여페 벌서 힌머리털이 빗나고ー당신은 이조흔날 솜마고자를 벗기실여할만큼 늙엇습니다그려。三十年 四十年 五十年 그동안 당신은 무엇을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어더습니까

들과 산과 시내사이 어느곳에나 솔틈이 끼치는 無心함이 나를 흘겨보고ー이나무에 물이 마르고 가늘은、버들이괴 들ㅅ가에 날릴때 당신은 슬프게도 다시 힌머리가 늘것입니다。

漢詩募集

題 梨花

押 香

限 四月二十五日

新刊紹介

◀가톨릭靑年 四月號 發行所 京城府鍾路 가톨릭靑年社 振替京城一五五九七番 定價十五錢

◀기별소식 四月號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三丁目三五 東洋宣敎會聖潔敎會出版部 振替京城一一五五○番 定價五錢

◀時兆 四月號 發行所 京城府淸凉里町 時兆社 振替京城七四三番 定價十二錢

科學異聞

新原子의創造過程

米國 베를電話研究所의 K·K·다로ー博士에依하면 古代의 鍊金術師의꿈ー元素의變脫ー은 文明諸國의 一流의 實驗室의 原子破壞에依해서 十二分으로 實現되엿슴으로 今日의 科學의技術이 밋치지아니한것은 二個뿐이고 그남어지는 全部陷落되엿다。

今日의 元素變脫時代前에는 世界는 約二百五十種의原子로 되여잇섯다고 다로ー博士는 말하고잇다。이中에서 約四十種은 라디움과가티 不安定한原子로서 自然히 崩壞되여 다른種類의原子로된것이다。

『自然의女神은 變할수잇는대로 모든 安全한 原子核을 거의하나도 남기지안코 製造해내인것갓다 그러나 物理學者들은 겨우 四個年間에 數秒間 存在할수잇는 不安定의 原子核을 거의 다맨드러내엿다』고 興味잇는말을하엿다。

自然界에서 發見된 四十種의 放射性原子에 現代의 科學은 變脫術에 依해서二百二十種以上도 적지아니한ー다른 放射性原子를 벌서加하고잇다。

鷲鷙 (三)

本報 當選作家短篇리레ー

玄德 作

崔根培 畵

마을에서 한아인 기와집 마당귀에 놉다란 종ㅅ대가 서고 그리고 또 지주인 그집 안주인은 마음이 상양하엿다。 새벨레를 허노라 팔목까지 파리케 연두물이드른 손으로 기동어머니가 가지고간 닭갈우레미를마루끄레서 찬장으로 옴기여가며 또한번 치사엿다。

『제사날도 가깝고 진하게 쓰진 잘허겟서도 너무 미안허구먼 집의 닭도 알 안길때가 됏슬텐데』

『그러지안허두 안길여구 모아뒷든거와요。남의집 닭들은 안는가봐두 무슨놈의 닭이 알을 안어얍죠』

『요새 달갈금 비싸다는데 항구로 내다파러두 옴만가 서속한말갑슨 될거안야』

그리고 달갈을 집어너튼 아래찬장속을 고개를 기우듬이드려다보드니 곰팡슨 호박꼬자리한부치를 꺼집어냇다。마루전에 걸터안젓는 기동어머니 편으로 몸을 돌이며

『요전날 감자도 어찌 맛잇게 먹엇는지 몰라。씨할것 남기고 보낸것가』

『노마집에도 좀보내구 집에도 좀 남겨뒷서와요』

『노마집엔 그런것 작만도 안해뒷거가』

『뒷서두 남어나겟서요 새내는 알코 양식은 떨어지고헌데』

주인녀자는 호박꼬자리를 들고 마루전으로 나와다。기동어머니는 자기에게 줄것인가하고 잠시 보다가 외면을한다。안주인은 호박꼬자리를 풀더니 홀홀 입으로부터 곰팡을 날리엿다。

『요샌 노마아버지 병이좀 어떠타든가 가송뒷나』

『요즘은 좀더하든뎁쇼。두깐줄 밋두못하구 똥오줌을 바더내든걸입쇼。차차 농사질때는되오는데 그러구 어떠할셈인지 몰리와요』

『사람야밥도 그래걱정이셔、인정에 겨와 어쩌시지는 못하시고』

『허지만 인정은 인정이시구 댁 농사는 농사입죠 어듸하르잇을에 날 병이얍죠。그리고 날래 볏줄을 놋는다 손치드라도 울안으로 이러나 농사짓게 되겟드라구요。다리마듸하구 눈감으면 염허겟드라니까요』

그리고 사람은 양전해도 약질이여서 힘드는일은 못할 사람이란는것 서럽을때도 자기남편이 거지반동사일을 거드러주엇기에 망정이지 그러지안흐면 지랑해가지 못햇슬것이라는것、그래서격격이라는것 기동어머니는 한편의 가치를 깍기게엿고가 낫다。

그러나 그는 오래 노마아버지의 험담을 하지못햇다。마루미레서 개가 짓고나오며 바루노마어머니가 주문안에 나타낫다。기동어머니는 저옥이 어색해서 입귀가 일그러지는 우습을 바루잡지 못햇다。그러나 누구보다 바새울해서 그를 마젓다。코를 쫑긋거리며 꽁문이로 도는 개를피할인지 수집어 그러는지 기동어머니는 낫을 붉히고 부억쪽 축대로 올라서주너미트로 해서 노마어머니 등뒤에 조고만케 쪼구리고 안젓다。여페두구미를 겻슬바에는 무스웅한쳐이잇서 왓슬텐데 잠잠이 눈치만 살핀다。기동어머니는 궁둥이를 돌려 마주안즈며

『얼굴색이 무서우、어디 아푸』

『아푼대는 업서두』

하고 그는 면난져어 나슬 비빈다。

주인여자는

『업는 살림에 아이아버지는알코 얼굴이 조하질리잇나』 그리고『요샌 병이 좀 난가』

『그저 한모양이야요。그래두요즘은 입맛이 다러 백산설 찻기는해두 쌥 잇시야 해슬쇼』

그리고 잠깐 동울 떠엿다가

『아씨께 또좀 사정을 빌러 왓서와요。이따 저녁거리가 업는데 아이아범은 저만가지고 어린애처럼 복구 알는사람두고가진것 업군 더 못살겟서요』

이맛지말해노코 노마어머니는 고개를 다수굿이 처분만 기다린다。

주인녀자는 호박꼬자리를 펴 행주로 짝짝 곰팡을 닥거내며 잠잠이 말이 업다。

여기 조마조마하며 속을 조리기는 노마어머니보다 기동어머니가 더햇다。그는 주인녀자의 마음 옹측일 태도 여하에서 조곰전 자기가 한말에 그화답을엇는듯시퍼다

『나도 사정이 그러타네。자네도 아다시피 광에잇든 곡식은 전부 지난번에 항구로 시러내고 꼬옥 개량할거만 남겻는데 거기서 축을내면 어쩌나 인젠 양식은 일절 안내기로 햇다네 그리고 자네가 그동안 가저간건 수월헌가』

귀병에 코병에

大木耳鼻藥

대 목 이 비 약

귀젓이 나오거나 아프고 울니며 쑤시는 분 코속이 맥히고 거북하시며 붓고 쑤시며 아푸시거나 고름이 나오고 냄새가나며 늘 부풍이나시는 분은 하로바삐 大木耳鼻藥으로 근치식혀 주시기바랍니다

귀병이나 코병처름 불쾌한 기분을주며 늘 고롱을 주는병은 또 다시 업습니다 특히 코병을 알는분은 늘 부롱이 나며 호흡하기에 곤난을 늣기고 더구나 머리가 둔해저서 생존경쟁에 지게됩니다

더구나 조선은 대륙성기후인 관게로 코병이나 귀병에 걸니기쉽고 또한 중한이 되시기쉬우니 늘 주의하여주시사 고질로 되기전에 끝 꼿처주시기바랍니다

귀나 코는 사람의 몸조직에 가장 중대한기관이니 귀병이 중하게되면 생명까지 위험한 경우가 많으니 주저마시고 하로바삐 꼿처주십시요

본제는 獨逸의 醫學大家「포이추열」博士가처방하신 약으로써 만흔稱讚과 感謝로 환영을 받고잇는 약이오니 중한이되시기전에 속히 꼿처주시기를바랍니다

귀젓·耳道炎·耳痔·귀가아푼데 耳內濕疹·귀가 다루·귀밥·急性鼓膜炎·蓄膿症·鼻漏·鼻가 다루는데 특효가잇습니다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全道藥房에잇음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東京神田鍛冶町 大阪淡路町

凱歌오른優良國產

プラトンインキ

뿌 라 동 잉 크

机上에革新!

銃後의能率은 금방躍進한다

찍거이가업고 펜에녹어 안난다 最後의 一滴까지 술술鮮明히써진다…

…이것이 プラトンインキ의 特長입니다 따라서 工夫나 机上事務도 훨신 能率이나고 時間과經費의 虛費도 업서집니다 銃後의 能率增進에 업지못할 國產優良잉크입니다

萬年筆用……二○전

梅毒の自己診斷

이것만은꼭알어두자

梅毒은健康人일수록 걸리기쉽고惡化되기쉬워

放心

철실하면 젊은사람은 血氣에따라 病을輕視하기쉬지마는 梅毒은 健康한사람일수록걸리기쉽고또惡化되기도쉬ㅂ다 四十歲前後가되여 생각지안튼 惡性梅毒에 襲擊된다는것은 모두가젊은 時節에 梅毒治療를 不完全히햇기때문입니다 近은 普時와달라 潜伏梅毒이만허 어느때爆發的으로頭腦를侵犯할지모를일이라放心할수업다

◆橫痃의危險

梅毒 은感染하면 即時血液內에서작구번식해서나중에는 무서운梅毒性諸病을 이르키게된다 그러나 처음에는 별다른일이업고 다만淋巴腺이부어 소위橫痃이라는病이된다 그런데 다른病과달라 梅毒은이러한病狀이잇서도 그러케痛症이업고 괴롭지도안스므로 젊은사람들은 그대로 放任해두는것인데 이것이元來잘못으로 橫痃期를지나면 어느새에는第二期梅毒時代로된다

◆第二期時代

第二期、即皮膚病時代라고하는 이時期는얼골과목덜미바게手足、등가튼데到處에 여드름가튼부름이생겨 하나가낫는듯하면 또하나가생기는 증상으로된다 그바게 이時期에는목소리가쉬고 頭髮이빠지고한다 梅毒은이時期에 充分治療해두면 걱정도업는것이지만 이때부터梅毒特有의潜伏期라는데로드러간다

이것은 한번表面에나타난梅毒이全혀 그그림자를감추어 活動을 中止한듯한 形態를갓게된다 이러케되면 마즘내 梅毒에知識이 업는사람은 往往히失敗하게되는것이다

◆餘病의倂發

왜그런고하면 大槪 사람들은 이것을 全治된줄생각하고治療를 中止한다 그동안病勢는 사정업시進行해서 乃終에는 무서운第三期梅毒으로옴겨가서 더욱더욱 腦髓를나타내게되여 胃腸、心臟、肝臟、腎臟、肺臟을侵犯해서 죽게하거나 病菌이骨髓를 侵害해서 마즘내는腦中梅毒이되어 무서운麻痺狂即氣狂이나 天痴로된다는一生에回復할수업는

◆悲慘한狀態

에빠지게된다 어느거나梅毒의惡化는患者自身의放心에 큰原因이잇는것이니 恒常梅毒에對한自己診斷이必要한데 만약그것이確實히梅毒인줄알거든即時

◆適當한治療

를하여야할것으로 이러한意味에서누구에게라도 勸奬하고저하는 것은千餘年來 驅梅內服藥으로서 알려진

ベルツ丸이다 本劑는血液을 用할따라 血液淋巴液의 毒素를排泄殺菌하고食慾을 增進하며頭腦를 明快히하는等完全히梅毒治療의目的을達할 수가잇는것이다

梅毒과體毒

便秘와부름에

ベルツ丸

베 루 쓰

SUZUKI NIPPON-SEIYAKUSHA

(主效) 梅毒、胎毒、痳毒、橫痃、濕毒、冷毒、痔瘻、腦梅毒、遺傳梅毒、류ー마치스、慢性皮膚病、여드름、動脈硬化症、便秘性

(價定) 二十日分三圓 (德用)二十圓 三十五日分五圓 二百六十日分(家庭用)三十圓 七十五日分十圓 送料內地各十五錢

本舖 東京市日本橋區濱町三丁目 鈴木日本製藥社 社主 鈴木淸二 振替東京五番·電話茅場八十番·九十番

全道有名藥房藥品部에 잇슴

代理店 京城 新井·木村藥房 釜山 大黑·藤田藥房

西道繁榮에寄與할 動脈線工事進捗

滿浦、平元、西鮮中央線等等

平壤中心의各鐵道工事現況

【平南支社發】인구 구역(區域)건축 산업 기타의모든통계와 현실이 평양의비약적발전을 파시(播示)하고잇다 그러나 평양을중심으로하고 사방으로뻐치는 철도선로의 전진부설의 사실만큼 평양의근대적도시로서의 일홍의발전을 표시하고 또 발전을위하여 그만큼 긴요한사실은업을것이다——웨냐하면 두줄기의 레—일은 그것이 문명의 주류(主流)이고 인맥(人脈)의 동맥(動脈)이며 산업의 벨트(革帶)이기때문이다 이것에의하여 평양은 비로소 판서일대의 심장이되여 그세력권(勢力圈)을 넓히고 더욱더크게 자라날수잇는것이다 그러기때문에 평양은 북에로 남에로 동서해안에로 만주에로 철로(鐵路)를뻐치고 달리고잇스니 지금당장공사에 손을대인것만 다음과가티 여러선이다

뭍에로突進하는滿浦線

1 장래에는 만주국 중부에까지달리게된만포선은 강계(江界)에서 최후의끝인 만포진(滿浦鎭)에까지이르는 공사를하고저 그동안 준비조사중이던바 이도 끗나고 또재료난이 우려되던바 그입수방도도 타개되엿스므로 평양철도건설사무소에서는 십일일부로 강계에 공사구(工事區)를 설치하고 오는이십일부터 착공하게되엿다

陽德을出發하는平元線

2 동해안의 중심지 원산(元山)에로향하는 평원선은 현재의 종점 양덕을출발하여 성내리(城內里)에이르는 륙십키로의공사를 금월말경부터 시공한다

西鮮中央鐵道는來初旬부터

3 서조선의 중앙을 뻐치여 덕천(德川)에이를 서선중앙철도는 승호리(勝湖里)를 출발하여 삼등(三登)을지나 강동(江東)에이르는 삼십칠키로의 공사를 오월초순에 착공하리라한다

六日부터營業開始할平安鐵道

4 평안철도(平安鐵道)는 평남선진남포(鎭南浦)를 기점으로 장래에는 신안주(新安州)에까지 이르러 서해안의 인문발전에크게 기여하려는것인데 지금은 용강(龍岡)을떠나 망랑만(望樂灣)까지 삼십키로에 공사를 촉진중인데 이것이끗나는대로 유월초순부터는 영업을개시하리라고한다

京義線復線、大同橋新架

5 경의선(京義線)이 복선(複線)이 되는동시에 대동강철교를 오백만원의 거대한공사비로 새로 가설하기로되여 방금 잠함(潛函工事)에 착수하엿는데 명년삼월에 준공하리라한은 이미보도한바이다 전기와여히 사방으로 뻐치는 철도선로가 공사를촉진하고잇서 이것들이 완성한후의 평양역은 면목을 놀랍게일신할것은 상상키어렵지안흔일로 현재의 바라크식의 빈약한 평양역사(驛舍)의개축도 시일문제일따름이라한다

牛車에幼兒轢死

【慶州】지난팔일오후네시반경에 경주읍성동리김해춘(金海春)(四〇)씨의삼남조남(朝男)(七)은 이충청면의장문열네대문루대(?)에나와놀다 그만 현판루에떠러저 머리가라수처에 빈사의중상을입엇다한다

이가 英??(??)에서 소구루마에 짐을 실어가지고 리(里)로가는도중 소구루마 만 아모보내고 자기는 뒤에 떠러저 이야기하고잇는동안에 구루마가 성동리 어떤집앞에 이르자 세살된아동식의 ??(??)의장남 ??(?)가 놀다가 구루마 바퀴에 치여서 즉사한것을 즉시 월성의원(月城醫院)에 데려다가 응급 수당을 하엿스나 곳 절명되고 말엇다한다 경주서에서는 소고삐를 노하둔 김해춘을 업무상 과실치사죄 (業務上過失致死罪)로 방금엄중히 취조하는 동시에 오세미만의 어린아이를 도로에 혼자내어보냄 도로규측위반도 상당히 처벌하리라하며 어린이 기잇는 가정에서 각별주의하기를 바란다한다

牙山金組定總

【牙山】충남아산읍온천 아산금융조합(牙山金融組合)제이십구기정기총회는 오는십오일오후영시에 ... 의사항은 아래와갓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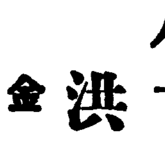
一、昭和十二年度第二十九期財產目錄、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及損失金處分承認의件

一、役員手當支給의件

一、組合規改正의件

益德鑛山慘事 鑛夫死傷

【慶北支社發】경북영덕군지품면(知品面)익덕광산주식회사 영덕광산(益德鑛山)에서는 지난구일오전팔시경 까스발생으로 인하야 질식사망자한명 생명위독이두명의 참사가 발생되엿다。즉 동광산 광부인 박선수 (朴善守)(二?) 김동섭(金東燮)(二?)외한명이 항내에서 작업중 담배불이 항내에떠러저서 항내에깟든 가마니에 불이부터 항내에잇는 가스가 발생된것으로 전기 김동섭은즉사하고 박선수외한명도 질식된채로 항외에끄러내엿는바 생명이위독하다고한다



長篇小說 **林巨正** 洪碧初 作 金熊超 畵 【85】

소굴 (五十三)

장자골다리에서 소홍이 집을 차자가자면 다리남쪽 큰길을 십여간쯤 나가다가 동쪽 실골목으로 꺽기는데 그실골목이 사람서넛만 느러서면 팔물리기가 북할마큼 널비도 좁다라커니와 기리 역시 짤막하엿다 실골목 안을 들어서면 바른손편은 큼직큼직한집 뒷담이요 왼손편은 적은집들 뭇아펀데 막다른 서향으로 문난집은 처지밀고적은집이 모두 다섯채에 안집 섯재가 소홍이의 집이엇다 소홍이의집은 기역자 원채에 안방 안방부엌 대청 건너방이 잇고 일짜 아래채에 문간 돌아래방 광이 잇는데 서쪽 안방뒤와 북쪽 대청뒤와 동쪽장독대 담넘어는 뻥돌라 남의집이요 오직 남쪽 아래채아괴실 끝목이엇다 아래채가 맞잇는쪽은 막달은집 행낭뒷벽과 나란하나 문깐잇는 쪽은 엽집보다 조금 어프로 나와서 문깐교안방부엌 모퉁이에 조그만 기역자 당이 끼어잇는데 그담우에는 졸도적 방비로 독개그릇 깨어진것이 수북하게 언치엇섯다 소홍이집을 차저오는 손님이 수효도 만커니와 그손님들이 열의어덟아홉은 조신치못하야 아니밤중에 드잡이 노홍때도 잇고 오밤중까지 떠들때도 만하서 이웃들안이 적지아니하얏다 그러나 소홍이집 문이 일직 닷치는날 밤에는 드잡이도 안나고 떠들지도 안하므로 이웃집사내들은 『그기집년 잘두 묵어드린다』 하고 욋고 녀편네들은 『오늘밤엔 조용하겟구먼』 하고 조하하엿다 이날 소홍이집의 저녁밥은 대종어서 느저서 인경친뒤에 겨우낫섯스나 문만은 초저녁부터 다더걸고 오는손님들을 모주리 따도리엇섯다 밤이 이경쯤이나 되엇슬때 누가와서 문을 두들기는데 하두몹시 두들기어서 조석해주는 녀편네의 사내가 돌아래방 툇문을 치어들고 봐궁내다보둑 매랭이쓴 사람하나가 문틈으로 안을 드려다보며 문짝을 두들기다가 톨창문열리는소리를 듯고 뒤로 물러나섯다

『누구 찾소』

『임씨성가진 낭반이 지금 여기와기시오』

『어데서 왓소』

『그냥반의 친구냥반이 알어오라십디다』

『지금 여기서 약주를 잡수시우』

『멍든이 기신가요』

『네 잠깐잇소』

소홍이집에잇는 사내가 톨창문을 다치고 돌아서서 눈또고 누어잇는 신불출이와 팍두둥이를 나려다보며

『가서 말슴해야지』

하고 물으니 두사람이 다가치 고개 끄덕이는 시늉을하앗다 그사내가 안방에잇는 꺽정이에게 사람와다간것을 말하러 간동안에 신불출이와 팍두둥이가 서로 돌아보며

『누가 알리보냇슬까』

『남소문안에서 보냇는가베』

『조강상제가 설마 기생방에 울라구』

『그외에는 여기와기신줄을 짐작할사람이 별루 업슬걸』

『우리는 남섯밧글루 못가구여기서 자는데 서울사람은 인정친뒤에두 맘대루 나다니는 모양일세』

『순라에 잡히지안는 무슨 표(牌)나 패(牌)를 가지구다니는게지』

이런말들을 짓거리엇다 꺽정이가 신불출이와 팍두둥이는저녁들을 먹여서 남섯밋골로 보내랴고한것이 저녁밥을 다먹기에 인경을 처서 순라에 잡히지안토록 보낼도리를 궁리하는데 소홍이가 그대로 밤들을 꺽정이에게 맛한뒤 조석해주는 녀편네는 늘근어와 아이녀이 자는 건너방에 가서자게하고 그녀편네의사내와 섹이가치 돌아래방에서자게한것이엇다 신불출이와 팍두둥이가 와다간 사람이 어듸서 오는것을 몰려놀라가서 꾸중을 실컷 듯고 어보지안혼것으로 꺽정이에게 불나려오뒤 한식경이 채못되엇슬때 아랫부엌 모퉁이에서 짤그랏 깨어지는소리가 나서 신불출이가 소홍이집사람보다 먼저 자진 담우로 사람의얼굴 하나가 보이엇다

『그게 웬놈이냐』

신불출이가 소리치자 그얼굴이 다시더 불근 소사올르더니 담우에 얼진 깨진그릇을 마당으로 집어던지면서 짝근짝근 소리가 나고 또한편에서는 문짝을 부시는듯 우직근우직근 소리가 낫다 돌아래방에서 세사내 방이 아이들도 다시 나와서 모두들 마당으로 쫏차나와다

燃料統制에悲鳴

甲山僻地帶住民들살수업다고

咸南道에緩和陳情

【咸南支社發】벽지대주민들에게 큰위협! 연료(燃料)의판매통제를 곳처서그수급을완화하야달라는진정서를가지고 갑산(甲山)주민대표김창림(金昌林)등칠십명이 련서로 십일 함남도지사에게 보내여왓다 그내용을보면 갑산읍과가튼 벽지대는 일년중 절반이상이치운지대로서 오늘에대는 연료는 평지대보담도 몃배나 더중요한 필수품인데 지난십일년부터 영림서(營林署)에서 국유림주체의 편의를위한다는 리유로 국유림의판매를 통제하야 지정인에게만 판매하게되얏스므로 신탄의 수급이 원활치못하야 그가격만 폭등하고잇서 주민들의 생존권에까지 위협을주고잇다 십일년을 전후로나누어보면쌀갑은 별로오르지안코잇는데 나무갑은 이배반이나 대폭등하야 주민들의 경제력을가지고는 용의히 주운겨울에 나무를사서때일수업는상태에잇다 도당국에서는 고지대와는 특수조건이잇는 주민들의 연료라는주요한관점에서 이통제판매를곳처서 그수급을 원활히하야주며 정당한가격으로 주은대로투사히 지내도록하야 달라는것인대 과반이문제로 읍민대회(邑民大會)까지열고서 읍민의 총의를 거더진정하는것이라고한다

生死岐路에立한

鎭南浦取引所의運命

存續性잇스면外地財閥도加入

【鎭南浦】휴업중의 진남포 취인소문제로인하여 선비관계업자들이 당시부청에 집합하여 취인소의 부활이나 그러치안흐면 폐지이냐 하는문제로 조좋협의하엿는데 박금 일본내지에귀성중인 취인소 이사 좌등항태랑(佐藤恒太郎)씨의 귀남을 기다려오는 이십일다시 집합하여구체적태도를 결정하기로 되엿다 그런데오직 문제라고는 현주인소 소원이존속할의사가잇는지업는지가중요한조건으로 만일 존속성이충분이잇스면 동경과대판등지의 대재벌들도 가입할가능성이잇는이상 또평양방면으로도 유력한 재계충도 가입한다는낭보가잇스므로 곡물의대지반흘기다리고잇는 미도(米都)진남포업자들의 분기와 취인에대한성의를기대하고잇고 더욱 태도가대단히 주목된다고한다

郡北協同組合 十年만에解散

【咸安】과거십일년전 일구이팔년십이월십칠일을 탄생일로서현리사변기섭(卞奇燮)씨의 필사적 노력으로 조직된 군북협동조합은 대내대외적으로 구사일생의 운명에도 불구하고 모—든파란을일축하면서 십개성상의 젊으지안한세월을 경과하여 소비대중의 막대한리익을 주어왓는데 오래전부터 년년히하는대회를하라하엿스나 경찰의금지로 못하고잇다가 돌연근일에와서 경찰로부터 해산을하라는 명령을밧고 당국자들은 황당함을 마지안하여 지난십일일에 당조합사무소에서 해산총회를 개최하고해산하엿다한다

琴湖江水質良好 工業用水難解消

大邱工都化에明朗報

【慶北支社發】대구부세의 발전은 오로지 공업시설(工業施設)에 잇다고하야 수년전부터 일본내지유수한 회사와 공장유치(工場誘致)운동을 맹렬히 해왓스나 번번히 하천(河川)을 끼지못한 대구로서 수량부족으로 말미아마 그실현운동에 차질이 되여왓던바 이대구부세발전의고질을 여하히 제거하나하는 대구부의 일대과제로 되여잇섯다 보본에 기보한바와가티 대구부외신천(新川)과금호강(琴湖江支流)의수질을 검사한결과 조흔성적을어든데 힘을어더 지난구일부터삼주야동안 총독부 토목과 진전(眞田)기사가 예의지하수(地下水)용출시험을 하여던바 그조사가 요지음 끗낫는데 그성적에의하면 우물(井戶)일개소의 용수량은 일일 이천육백입방메돌에달하고도 여력이 충분히 잇는터로 공업용수난에 허덕이던 대구부로서는 이결과 작약하야 금후공장유치에 자신잇는 운동을 개시할것으로 대구부세의비약적발전은 공업대구에 크게기대된다고한다

滿人拳銃強盜

現金卅一圓強奪逃走

皇姑屯同胞兩農家에서

【奉天】지난칠일밤열한시반경봉천시황고둔(奉天市皇姑屯)전화원집중가문대(田花園十中街門牌)김명균(金明均)(三一)씨방과 동김경혜(金景惠)(二〇)씨방에 만인권총강도일명이 침입하야 전기랑씨를 권총으로구타협박하고 김명준씨로부터 십팔원 김경혜씨로부터 십삼원합 삼십일원을강탈 도주하엿다고한다 급보를접한소관황고둔경찰서에서는 방금범인체포에불면불휴로 활동하고잇스나 범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觀櫻時에竊盜出沒

【慶北支社發】근일과가튼 관앵일기(觀櫻日氣)에 마음이뜬 도회사람들이 교외로교외로 집을 비우고 모두야외로 나가바리는 틈을타고 고무도적(小竊盜)이시내를 횡행하며 닥치는대로 집어가는터로 일반의주의가 필요하다는바 지난팔일 덕산소학교(德山小學校)에서는한거번에아동 신십오족을도난을당하엿다고한다

小兒落傷의慘變 꼿노리大會에서

【平南支社發】그옹대함을자랑하는평양신궁회당을 어린이 피로 물들인불상사——평양부 내지인 즈각사원(寺院)공동주최로 십일 공회당에서『꼿노리아이들대회』(花祭子供大會)가 열리엇섯는데 오후두시경 참관와섯던 평양부로 목과원 장곡천용삼(長谷川勇三) ... 라고한다

各界權威者를모아 府政調査會設立

元山府不遠委員任命

【元山】원산부에서는 시가지계획의실시를 압두고 도시시설의 개선발달에관한 부정(府政)의 원만한 운용을기하기위하야 금년도부터 부에다 부정조사위원회(府政調査委員會)를 설치하기로하얏다 즉 시가지계획의실시에 수반하야 공공사무급 공익사업기타제반의 관계사항을조사하야 부시(府是)를 정하기위하야 금년도예산에 일천오백원을 계상하고 부회의원을 중심으로 학식경험이 풍부한 권위자를 위원으로 임명하기로되엿는데 불원에 임원도결정될것이라한다 그리하야 원산부의 부시는이 조사기관을통하야 결정될것으로 그기관의활동에 기대가크다

七山바다의 石首魚豊漁

【木浦】조기(石首魚)의 본격이요 격하야 우리의 식상(食床)에서 가장중애를 밧는 칠산(七山)바다에 어장은근년에 드물게보는 풍어(豊漁)라한다 무안군소흑산(小黑山)파래도(吾島)바다 부근에서는 어백오십척의어선(漁船)이 출동하야 북상(北上)하는 조기떼를노리고 잇는데 근년에 보지못하는 만마리의 조기(魚旗)를 날리고 ... 매척에일만마리부터사만마리까지 잡는 선(漁船)이 잇다고한다

未完成水組에 創立費를補助

【遂安】대정십오년십월경에 이서면연지수리조합(蓮池水利組合)을 창립하라고 지주총회를열고 이백사 그후 회원삼백사십인이중 십팔인까지 동의를어더 당국의 인가를 바라고잇던중 소화구년 토지개량사업(土地改良事業)중지로 말미아마 연지수리조합도설립치못하게되엿스므로 이서면유지 박재순(朴在淳)씨외 칠인은 총독부에 불서면수리조합창립비로 삼천칠백칠십원보조를 신청하얏던바 결국이천육백구십일원보조가 확정되엿다한다

奉天의話題

地下에埋藏된 一千萬圓든金庫

日露戰爭때露軍이감추고간것?

大和署에發掘願提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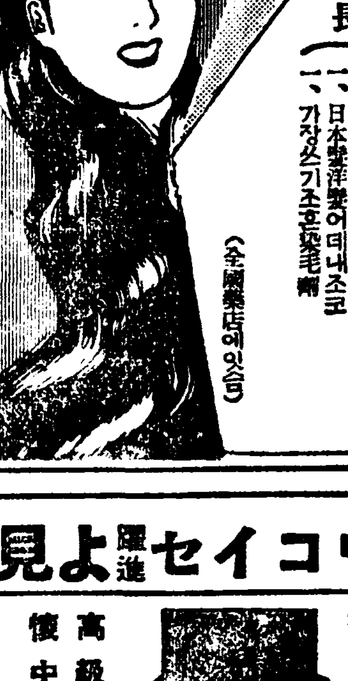
【奉天】일로(日露)전쟁시의 비화(秘話)인 대전로군의 매장금고를차돌고 봉천에 화제를던저주고잇는이때 돌연엽기적흥미를끄는 발굴원이 제출되엇섯다 그는 시내천엽정(千葉町)유번지 북산농장(北山農場)씨이며 그내용개요를드르면 다음과갓다 ◇……지금으로부터 이십삼년전 즉대정오년경 당시봉천일본총령사관에부속하는 수도(水道)공사중 문제의금고를 발견하고 그냥도다시매장하여버렷는데 동금고가 의외에도 일로전쟁때 로천대회전에패하야 총퇴각을개시한 로군이 매장한 일천만원든 금고라는소문이 한간에떠돌게되엿다한다 어에 시내십간방(十間房)에거주하던 모씨의말을들으면 그금고를 로군이 매장한곳은 시내가무정(加茂町)십칠번지부근이라고한다는바 이제이일확천금의꿈을꾸는 전기북산씨는 전에도 두어번그금고발굴공작을 하엿스나 수포를돌아갓는데 또다시 지난구일오전열시경 소관대화서(大和署)보안계에 출두하야 그금고발굴원을 제출하엿다한다 어원서를접수한 대화서보안계에서는 시공서(市公署)당국과타합한후 적당한재단을 하리라는바 아프로 어떠케 전개될는지? 자못흥미 백이십퍼—트의 엽기적주목을 끌고잇다고한다。

簡保健康相談所 咸興에도新設

【咸南支社發】함흥간이보험건강상담소(簡保健康相談所)는 수년전부터 그설치를 계획하고잇던바 예산관계로 비로소 이것을실행에 옮기지못하고잇섯는데 마침내 부민들의 소망에 효과를나타내여 금년도에는 설치하기로 되얏다 장소기타는 미정이나 느저도오월말중에는 개업하리라고하는데 처음에는 의사간호부각일명을 두어진료를 시작할터이나미구에 『렌트겐』 파까지 설치하야 간이보험가입자들의무료진료를하는데 보건향상에는 큰공헌이될것이다

電線橫領한電工

【慶南支社發】부산부 (月一町)전기회사(電氣會社) 직공 리장상(李長相)(二五)은 십일오후 열시경 자동차를타고 전기회사 창고를 차저와서 창고주임에게 송도방면의 전선에 고장이생겻스니 전선을달라하여 시가삼백원의 전선을 가저다 부평정(富平町)자기의집에다가 숨겨두엇다가 발각되어 신일헐부산서에인치되엇다한다



悲らが赤毛染 るり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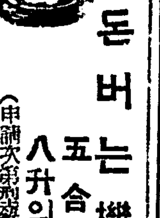
곱고숫한黑髮!

생생한 젊음과어여쁨

이야말로「るり羽」가가진魅力

特長 一、洗髮후라도안해도곳드릴수잇고 一、藥은도로게濁에녹고 一、洗髮香水로色艶이더하고 一、옷깃과베개를더럽히지안코오래 一、日本髮洋髮어데나조코 가장쓰기조흔染毛劑

(全國藥店에잇슴)



リード式

돈버는機械

五合의쌀이 八升의菓子가된다

釜山府瀛水町一丁目 城野製作所 (申請次第型錄進呈)

銃後の強化は營業の進步

銃後 朝鮮·滿洲·台灣に贈る新商品

より日·鮮·滿·台·陶器店開業

日·滿·台人向: 食堂用 料理商 官衙商 大衆向

陶器の仕入は產地!! 日·鮮·滿·台向大安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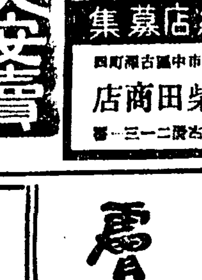
朝鮮人向: 便器 ツボ 五二井 四五サンバル 蓋付サバル リンチ代久

植木鉢 スリ鉢 荒物其他 一切品揃

婦人サバル 大小皿其他 鮮人向一切 澤山在庫

寫眞入八百種陶器商報無代進呈

岐阜縣多治見町 今田中一郎商店



特許石油下向ランプ 特許ガソリンランプ カタログ進呈

特約店募集 名古屋市中區古渡町 合名會社 柴田商店

海軍省拂下品 防水布外套大安賣

海軍拂下防水布外套

本品は海軍の拂下品の新品にて極厚地黑色 ゴム引防水布にて丈夫向防雨防雪に最適品寸法も大寸

鐵道省拂下防水布外套 (黑色) 一等品 三圓九十錢 二等品 二圓六十錢

米國製直輸入品!! 米國製中古舶來中折帽子 純毛本ベロア—中折帽子 A品 四圓九十錢 色目…茶黑鼠

ソフトファー中折帽子 純毛品 A品 四圓九十錢 色目…茶鼠黑

本品は米國より直輸入の舶來中折帽子にて高級クリーニングを加へて型は最新流行品實は純毛高級品新品なれば二十圓以上の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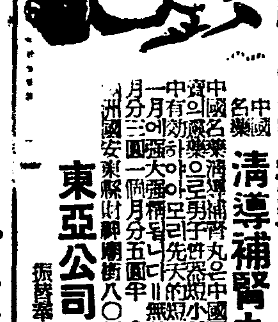
軍隊拂下改造編上靴 陸軍茶利革編上靴 B品 二圓九十錢

本品は軍隊の拂下中古靴を改造加工へ底は牛張革調達鋲を打込み丈夫向品です青訓用作業等非常時に大好評足袋の文數をお知らせ願ひます 新品黑ボックス、青訓編上 六圓五十錢

註文大第一品づゝにても代金引替にて御送附申上ます

(一圓以上の御注文に限り送料不要) 十二圓以上の御注文の方には帽子か靴五分の一の價值

諸官省拂下品卸問屋 名古屋市東區清水町局前 松山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一二五一一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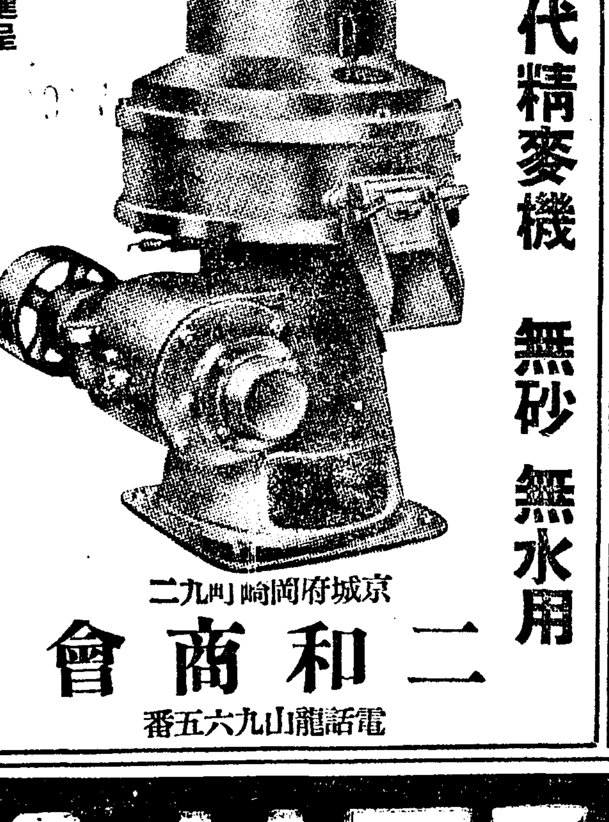
性器強大靈藥 中國名藥 清導補腎丸

東亞公司藥品部 振替奉天三二四四番

●工夫中 ノーシン

腸がタルかわきと

八千代精麥機 無砂 無水用



カタログ進呈

京城府岡崎町九二 二和商會 電話龍山九六五五番

皮膚 チャージ

◎顏面手足거츠름指間무좀股間습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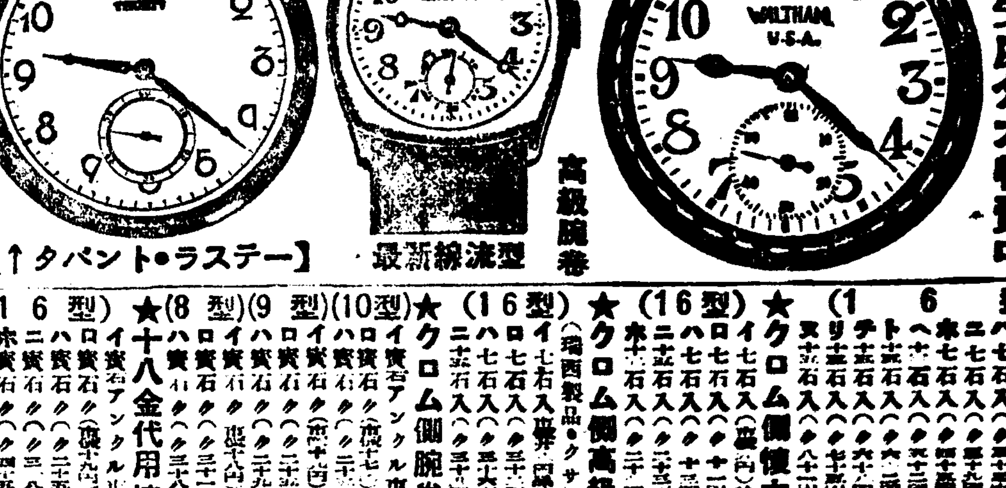
◎근질근질한皮膚病에곽한병만쓰면영낙업시完治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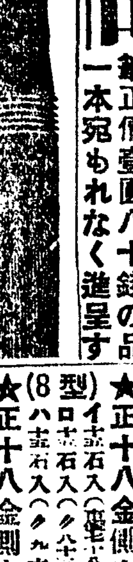
定價 卅錢、五十錢、一圓 二圓、三圓、五圓

東京神田花房町 山崎帝國堂

容陣の大シャウコイセ 見よ 躍進

カタログ 景品





景品 五圓以上品御註文の方へ弊社發賣のTM萬年筆正價壹圓八十錢の品一本宛もれなく進呈す

大分配 中郵便 切手參錢同封御申込次第直に御送附申上ます

特別原價提供大賣出 同業者整理品引受處分大特賣中

世界的標準時計 ウオルサム 瑞西製 高級懷中 高級腕卷 最新線流型 【↑タパント·ラステー】

★クローム側ウオルサム懷中(米國製品·ノサリメダル付)
イ 七石入(〃二十八圓)特價 一〇·〇〇〇
ロ 七石入(〃三十二圓) 一一·五〇〇
ハ 七石入(〃三十五圓) 一二·七〇〇
ニ 七石入(〃三十九圓) 一五·五〇〇
ホ 七石入(〃四十五圓) 一九·八〇〇
ヘ 十五石入(〃五十二圓) 二一·五〇〇
ト 十五石入(〃六十二圓) 二五·八〇〇
チ 十五石入(〃六十八圓) 三五·〇〇〇
リ 十五石入(〃七十五圓) 四二·〇〇〇
ヌ 十五石入(〃八十二圓) 五〇·〇〇〇

★クローム側懷中(ノサリメダル付)(16型)
イ 七石入(〃二十圓)特價 三·三〇〇
ロ 七石入(〃十二圓) 四·六〇〇
ハ 七石入(〃十五圓) 七·二〇〇
ニ 十五石入(〃二十三圓) 八·四〇〇
ホ 十五石入(〃二十圓) 九·五〇〇

★クローム側高級懷中(瑞西製品·クサリメダル付)(16型)
イ 七石入(世界—圓)特價 七·五〇〇
ロ 七石入(〃三十一圓) 八·〇〇〇
ハ 七石入(〃三十六圓) 九·五〇〇
ニ 十五石入(〃三十八圓) 一二·五〇〇

★クローム側腕卷(本革皮付)(16型)
イ 寶石アンクル(〃三十二圓) 五·三〇〇
ロ 寶石〃(〃三十七)特價 七·〇〇〇
ハ 寶石〃(〃二十圓) 一一·〇〇〇
(10型)
イ 寶石〃(〃四十圓)特價 五·八〇〇
ロ 寶石〃(〃二十三圓) 八·五〇〇
ハ 寶石〃(〃三十九圓) 一二·〇〇〇
(9型)
イ 寶石〃(〃四十六圓)特價 八·五〇〇
ロ 寶石〃(〃三十二圓) 一一·二〇〇
ハ 寶石〃(〃三十八圓) 一五·〇〇〇
(8型)

★十八金代用懷中時計
イ 寶石アンクル(〃五十二圓) 四·五〇〇
ロ 寶石〃(〃四十九圓)特價 五·九〇〇
ハ 寶石〃(〃二十五圓) 七·五〇〇
ニ 寶石〃(〃三十圓) 九·八〇〇
ホ 寶石〃(〃四十五圓) 一三·八〇〇
ヘ 寶石〃(〃六十二圓) 一六·〇〇〇
(16型)

★十八金代用腕卷(本革皮代)
イ 寶石アンクル(〃四十六圓) 九·〇〇〇
ロ 寶石〃(〃四十八圓)特價 九·六〇〇
ハ 寶石〃(〃四十八圓) 一三·〇〇〇
(8型)

★正十八金側高級腕卷
イ 十五石入(〃七十八圓) 二八·〇〇〇
ロ 十五石入(〃八十五圓) 三〇·〇〇〇
ハ 十五石入(〃九十五圓) 三五·〇〇〇
(8型)

★正十八金側高級懷中
イ 寶石アンクル(〃百五十圓) 五〇·〇〇〇
ロ 寶石〃(〃百十圓) 七五·〇〇〇
ハ 寶石〃(〃二百圓) 八八·〇〇〇
(16型)

註文方法…代引註文ハ內金トシテ註文高ノ三割以上御送金願マス。內金ナキ代引註文ハ一切發送セズ。前金註文ハ送料不要。代引註文ハ送料四十七錢也 註文書御與據ノ事 送金ハ小爲替又ハ振替東京一五七九四一番セイコウシヤ營業所宛御拂下さい

東京市向島區吾嬬町東三ノ十六 セイコウシヤ營業所 振替口座東京一五七九四一番

日活東西總動員 邦畫界空前絕後の國寶的巨大篇

忠臣藏 十二日 黃金座 封切

◎今回は特別興行に付き七〇錢均一 ◎午前開演時間迄入場の方に限り五〇錢均一

經濟解說 ②

各國戰時通貨
大戰當時歐洲貨幣

歐洲大戰時의戰時通貨는 一、政府紙幣(英、獨、露、瑞西) 二、小額銀行券(佛、諾威、瑞西) 三、臨時補助貨幣(獨、佛、北歐諸國) 四、都市其他公共團體의 發行한貨幣(獨佛等) 等의 種類로 分類된다 이가티『알미니움·푸론즈』貨가나타나고或은 西鉛貨幣 鐵貨幣、알미니움貨幣等까지도생겻다。또政府以外가 發行한緊急貨幣로서市까지도잇섯다。以下 二三의例를들면

(一) 獨逸의例

1、鐵貨幣 一九一五年八月廿六日 聯邦參事院의命令에基하야 帝國政府는 十〃페니〃及五〃페니〃의 二種類의鐵貨幣를發行하엿다。이것은『니켈』貨의 代用으로 最初는黑色의 酸化鐵을 使用하엿스나 이것은 腐蝕이 甚하므로 其後에는 亞鉛鍍金을 施하야使用하엿다。

別圖에잇는것은 亞鉛鍍金을施한것으로 色은 我城에서大正初年까지 發行한無孔의五錢白銅에 恰似하다。發行限度는 十『페니』의것 三千五百萬馬克五『페니』의것 三千萬馬克까지이고 發行期限은 平和克復後二年이엿다。

2、알미니움貨幣 鐵貨幣로는 流通中腐蝕하여 버리므로 十『페니』는 亞鉛貨幣 五『페니』는(알미니움)貨幣로 代用하게되엿다。『알미니움』貨幣는 五『페니』及一『페니』의二種으로 鐵이알미니움으로 代用되엿스므로 特히 가벼워서 貨幣가튼 感이업고 떠러트려도 소리가 나지안는程度이엿다。發行限度는 各二百萬馬克까지로 通用期限은 平和克復後二年이엿다。

3、亞鉛貨幣 亞鉛貨幣로 亞鉛으로 製造한것인데 形狀은鐵貨와 同一한것이다。種類는 十『페니』의 一種, 發行限度는 三千八百萬馬克까지로 通用期間은 亦是 平和克復後二年이다。補助貨幣外의 獨逸政府는 十馬克、五馬克의 政府紙幣를 發行하고 貸付金庫로하야금 貸付金庫證券(五十馬克、廿馬克、十馬克、五馬克、二馬克、一馬克의 六種)을 發行시켯다。또 大戰末期에는 各都市와 公共團體가 大藏大臣의 認可를어더 五十『페니』以下의 緊急貨幣를 發行하게되어 其素材는 鐵、亞鉛、真鍮、布、紙等 種種이엿다。

(二) 佛蘭西의例

佛蘭西銀行은 一九一四年八月 二十法及五法의小額銀行券을發行하얏다。그리고 이것도 不足하야 巴里商業會議所가 二法一法及五十仙의 三種의小額證券을發行하얏다。그리고小額銀行券은 各地의商業會議所에서 發行하게되엿는데 後에이것을 統一키爲하야 巴里商業會議所에서 發行하는『알미니움·푸론즈』貨는 이것을 擴張하야 九百十五(알미니움)八十五 [illegible] 이것은 發行限度一千萬法으로 佛蘭西銀行券으로써 언제나 引換하게 되엿다 甲商業會議所에서『알미니움·푸론즈』의 補助貨幣(二法 一法及五十仙의三種)를 發行하얏다 十 其他의 二十仙以下의 合金貨는 二法發行가八瓦 一法貨가四瓦 五十仙이 二瓦이다

이外에 各都市、自治團體其他에서 通用하는 緊急貨幣(알미니움、亞鉛、鐵等)로 發行하엿다。

(三) 露西亞의例

郵便切手型小額紙幣、이것은政府가 發行한것으로 一哥페크부터 二十哥페크까지六種이고 其外에 小額紙幣를 發行하엿다

(四) 其他

北歐諸國은 鐵貨幣를 使用하고瑞西는小額銀行券 政府紙幣聯邦貸付局紙幣를 發行하얏다。

〔寫眞說明〕

1、獨逸十『페니』鐵貨幣(表面) 2、同裏面 3、獨逸五十『페니』알미니움貨幣 4、同裏面 5、獨逸十『페니』亞鉛貨幣(表面)一九一八年發行 6、巴里商業會議所發行의 一法『알미니움·푸론즈』貨幣(表面)一九二一年發行 (了)

比昨年三月 一割餘高
天井不知의物價
大正十五年一月後最高記錄
鮮銀調査 京城都賣物價指數

鮮銀調査＝三月中의 京城都賣物價指數는 一二八五五인바 前月中에 比하야三分七厘四毛高 前年同期에 比하야一割三厘六毛 高로서 大正十五年一月의 指數以來의高價로서 十三年만의 物價騰貴時代를 示現하얏다 調査品目三十種中에 前月騰貴十九品低落五品保合六品이엿는데 이것은大

一年間의騰貴率
燐寸七割二分高
和金巾五割七分高
牛皮와石炭四割暴騰

이제今年三月의 各品目別指數를 前年同月指數와 比較하면 그騰貴率이 如左하야 燐寸의 七割二分高를 爲始하야 和金巾五割七分 石炭四割四分 牛皮四割三分 松薪三割二分 木材三割一分 大麥二割九分 再製鹽二割四分 絹絲二割二分 石油一割八分 木炭一割三分 日本酒一割二分 板硝子一割一分 硫安一割 醬油六分 麥酒六分 玄米四分等의順位이다

그리고 比前年同月低落된것은 生絲二割九分을 爲始하야 小豆二割五分 粟一割五分 豆粕五分 三八紬四分等의 順位로서 昂騰된것에 比하야 그率도적고 品目도적엇다

東京

日本銀行調査＝三月의 東京都賣物價指數는 二五一·五로 比前月九厘의 騰貴이엇다。調査品目百十品中 騰貴五十二品、低落二十六品 保合三十二品이엇다

이리하야 昨年最高指數四月의 二四八·○을 이미 二月에突破하얏는데이번 三月調査는또 新記錄이엇다

埃及輸入綿製品
關稅十割引上

【카이로十一日發同盟】埃及政府는十一日埃及에 輸入되는 綿絲及綿製品에對한 關稅는 現行率에比하야 十割에達하는 大幅引上을行하고 即日實施한旨를 發表하얏다

洋灰一袋에
六錢値上을容認

【東京電話同盟】商工省에서는十一日午後一時半부터 丸之內工業俱樂部에서『세멘트』業 改善委員會를 開하고 세멘트最高販賣價格改訂의件을 附議한結果 最近石炭運賃等의値上에鑑하야 全國一律로 一袋當六錢의 値上을 容認키로決定하엿다

또 値上實施는 五月初부터의 豫定인데 세멘트聯合會에서는 一袋十錢乃至十五錢의 値上을 希望하고잇는것으로 어떠度의 値上으로는 問題가안된다고 失望이라한다

米國小麥所持高

【華盛頓十一日發商通】西米利加農務省은 四月一日現在의 農家小麥所持高를 如左히 發表하얏다

一三四、八三三、○○○부셸

國防產業
振興要望
日滿實業協會에提案

來五月二十七日 京城에서 開催될 第五回 日滿實業協會總會에 朝鮮支部로서의 提案은 如左하다

一、大陸國防의 兵站基地인 朝鮮의 使命에鑑하야 政府는速히 朝鮮의 國防產業을 振興케할것은勿論 目下 不振狀態인 軍需工業 時局 重工業에 極力施設을 講究키를 要望함

位와 使命에鑑하야 政府는速히 某銀行으로부터 借入키로 內定하얏다

朝鐵茂山線
所要資金調達

茂山鐵鑛開發에伴한 輸送鐵道의 措置는 朝鐵의 咸北線을中心으로 改良하고 大體資本金二千萬圓程度의 北鮮拓殖鐵道會社를 朝鐵의 傍系會社로서 設立하야 鐵道輸送을 擔當케하기로되어 朝鐵은 來廿一日의 定時總會에 關係事項을 附議할터인데 이에 要하는 資金約二千五百萬圓도 이미 總督府의 斡旋에 依하야 某銀行으로부터 借入키로 內定하얏다

日本의發明은
世界第二位
朝鮮에도二萬圓補助

渡東中의 賀田京城商議會頭는 十一日『아카쯔기』로 歸任하야 아래와가티 말하얏다

要件의 第一은 發明協會朝鮮支部確立에 依한 主事의人選을 特許局에 交涉하엿는데 마치全國發明表彰式에 列席할수잇섯다 我國의 發明은 前年度까지는 獨逸英國에 다음가는第三位이엇스나 時局에刺戟되여 化用品의 發明資源의利用 廢品의 利用等이 發明되여昨年부터는 世界第二位로 된것은 자못기꺼운일이다 朝鮮도本年度부터 二萬圓의 補助가確定되여 陣容을 整備하게되엿스므로 그將來는 크게 期待되여잇다

第二의要件은 日滿實業協會總會의 件에對하야 東京의本部와 協議하엿는데 總會外一日은 日本商議主催로 日滿支經濟座談會를 開催하고 日滿支實業團結成에關한 民間側會議의 最初이므로 크게 期待가된다 다시一日은 日本海經濟懇談會를 열게되엿는데 이것은 日本海에 關係잇는 有力者가 參集하야 日本海를 中心으로 하는 經濟의 發展에 對하야 여러가지의 懇談이 잇게되엿다 이가티 五月의 日滿實業協會總會는 重要會議가 거듭되여 非常한 盛況이 期待되고잇다

私鐵의 問題에對하야서는 各方面의意向을 打診한바 結局私鐵補助期限 昭和十四年八月까지에는 補助法의改正 即期限延長 或은買收를 行하려는 大藏省、拓務省의 意思表示를確實히하고왓다

米粟輸移出入

四月上旬米及粟輸移出入高는如左하다

▲米輸出高 (玄米換算單位石)

	輸出	移出
上旬	六九	三三六、四八四
十一月以降累計	三七、八二一	六、三三〇、八〇八

▲米輸移入高 (單位石)

	輸入	移入
上旬	一	二七
十一月以降累計	八七	三、二一三

▲粟輸移入高 (單位石)

	輸入	移入
上旬	三八、七四三	一
十一月以降累計	一、三三三、一二九	八九九

朝鮮苹果特割輸送
現狀維持를陳情
生產業者의死活問題라고

朝鮮苹果特割輸送은 鐵道省에서 青森產을 廢止하고 또非常時의 車不足이란 理由下에 鐵道局에서도 廢止키로되므로 朝鮮苹果生產者側에서는 이問題에 對하야 各地產業組合、同業組合代表者會議를 十一日 午前十時부터 鐵道局會議室에서 開催하고 大邱、黃州、鎭南浦、咸興、安邊代表二十名이 그對策을 講究한 結果 起草委員四名을 選定하고 左記理由下에 十二日農林局、鐵道局에 特割現狀維持를 陳情하얏는데 目的을貫徹키爲하야서는 鐵道省에까지 陳情하라한다

○朝鮮苹果特割輸送現狀維持理由

一、生產者의 疲弊은特割에잇다

二、青森서廢止한것을 理由삼으나 朝鮮苹果의特割輸送은 그以前부터의일로青森의例를 問題삼을것이아니다

三、非常時라云爲하나 그것이언제까지나 繼續될것이아니다

黃海와支那海
水產開發計畫
朝鮮漁業者들의共同出資로서
一千萬圓會社創立?

黃海、支那海의水產資源確保는 今後戰果의 經濟的利用更正으로보드래도 重大한問題로 朝鮮에서는 어미이에對하야 斷然히 先鞭을지어 水產懇問船을派遣하고 調査하는等 着着準備를進行코잇는데 이에基하야 最近朝鮮漁業者의 共同出資에依하야 資本金一千萬圓의 國策漁業會社新設의計畫이秘密裡에 進行되는中으로 그形勢는크게期待된다한다

同計畫은 아즉計畫의域을 未脫한것이나 黃海、支那海의 現在의劣勢한 漁業現狀에鑑하야 朝鮮의 漁業者가 共同的으로 進出하야 크게 利를 보자는것으로 이때문에 鮮市場組合 朝市場組合其他 水產團體의 協同出資에 依하야 資本金一千萬圓의 漁業會社를 新設하자는것이다 이것은 內地의對支水產進出計畫과도 相衡되고또組合自體로서의 協議도잇서서 相當히 前途는 迂餘曲折이이슬터이나 朝鮮의 이先驅的計畫은注目할만하다한다

一年間全朝鮮鐵道
發送貨物激增
數量九百七十萬七千噸
運賃收入은四千餘萬圓

昨年四月부터 今年三月까지一年동안에 全朝鮮各鐵道에서 發送한貨物의 總數는 九百七十萬七千三百二十八噸으로 그運賃收入은 四千九十六萬四千九百五圓이엿다 再昨年에 比하면 總數로는 百三十二萬二千百八噸收入으로는 百九十一萬九千二百五十三圓이나 增加하엿다 旅客收入과合하면 一日平均軒當收入은五十六圓九十錢으로 再昨年에 比하야 九圓六十六錢의 增加이라한다

合計 六〇、五九二

貯銀預金積金在高

貯銀三月末積金現在高는 如左하다 (單位千圓)

種別	三月末現在
普通貯金	八、三六二
特約貯金	九、二五八
据置貯金	七、一九〇
積產積金	三三、六三三
定期預金	一、六六一
別段預金	四八九

昭和肥料倍額增資

【東京電話同盟】昭和肥料에서는 計畫中인硫安年十萬噸增產과 이에 關한北海道豐里鑛業所增炭案資金二千五百萬圓과 近間朝鮮에設立할化學工業會社의 創設資金에充當키爲하야 現在資本金三千萬圓(全額拂込濟)을 倍額增資하야六千萬圓으로할件을 十一日重役會에서決定、直時日銀에對하야 資金調整法에依한認可를申請하얏다

鮮銀異動

鮮銀에서는十一日附로써左히人事異動을行하얏다
▲外國爲替課長 福根次郎 ▲外國爲替課勤務 武藤武二 ▲外國爲替課長▲總務課勤務 服部久三郎 ▲總務課長代理 ▲總務課勤務 佐伯芳吉 ▲外國爲替課勤務 島津清一郎 ▲檢査役

株式
高寄後에
反弛

◇今日의市勢(十二日)

前場高寄 昨後場少戾後外電反弛에 不拘코 國府要人生死不明說을 傳하야 諸株一齊高寄로 東新百五十七圓四 鐘紡二百六十四圓七의高價를 보엿스나處分賣와 戾賣物에 壓倒되여 다시 反弛裡에 推移되다가 東新六圓九 鐘新四圓丁에大引되다

後場反弛 後場은 東新一圓低、鐘紡八低로 反落寄付後低迷裡에推移되다가 東新百五十五圓五、鐘紡二百六十二圓七에 大引되엇다

市場六感

㊕……將의生死不明說이 今朝의一場波瀾을 그렷스나 그眞相을 뉘아라? ▲市勢도高寄는하엿스나 그後의材料의 支援이업서 다시反弛 ▲아직은路物보다는 高價買付物의 處分物이만흔것을證明? ▲此邊의反高는 쪽혓자 東新五圓幅內外일것으로 보는人氣니 戾賣物도相當 目前으로는 過한賣進도問題라하나 買에도 妙味는업을뜻 ▲한층으로 지우는것을 기다리는것도一策?

㊇……阪地는 四圓七十一錢까지의突落을是認한後부터 因而下放狀態이오 當地는 더구나下放光景이어서 深入落을許하지안는모양 ▲米界의實際事情으로보면 政府米賣上을期待키難한만큼 買方針을樹立할수업고又는諸物價의昂騰으로 米만의 重獨低落을期待할수도업다▲따가또한春眠時代이므로 一丁範圍에서 十分繰返하다가 據點期의天氣如何로써 決斷하게될모양?

國債膠着

【東京電話同盟】金融市場의 樂觀人氣로 下支되고잇스나 無材料라 思惑的妙味도업서 依然 閑散을 極하야 自然市勢도 釘着商情을 未脫하야六分半이 十錢少弛하엿을뿐이다
▲一回四分一○二、一○ ▲二回四分一○二、一○ ▲三年物九八、五○ ▲米五分半三六○、○○

玉整理는繼續

東京短期의取組減少 代引激減等으로보아 玉整理는 相當히進行되여 小口買物은 거의投機펀드이나 大口側의買物은 依然殘存하야 이動向이極히 注目되는 大材料 이을테면蔣介石의 爆死가 는 것이事實化하야 事變이 意外로 短時日에 終結된다면몰라도 그러치안는限 事變은 長期繼續될것으로보아야할것이오 그러라면 株式의股然活躍을 期待키도 어려워 自然大勢에 눌려 大口買方도 投하고는잇지못할것이니 徹底한玉整理가 完了되기까지는 假令相當한大幅反高가 잇드라도 結局反賣가아닐가하는 商談도不無하다

依然戾賣人氣

賣進警戒로反戾商狀이된때에 將介以下 國府要人生死不明說을 傳하야 人氣硬化로 高寄하엿스나 그眞相은 알길이 업고 이機會에 賣債를 買付한側은 이機會에 退하러하는 눈치며 戾賣人氣도 依然하야 高價는不穩으므로 戾高價는 賣叩될것이오 또는 相當한 一氣上伸도한 疑問이 되엿서 一方 東京代引의減少等을 보면 賣餘地도 疑問이라하나 玉整理는 進行中이며 賣込한度跡로落付를 高價로 反弛狀이 되엿다 다시一日은 [illegible]

後場膠着

後場은 三十二圓三十錢인三丁低로 始場한後二節不成二四五節三十一錢同價로 釘着이엇다

少落後엔下澁

今回內地各市場의 反落은 政府米賣上도 客月에 實行한第三次賣上으로 一段落을 告하엿다는것과 又는 朝鮮米의 各埠頭의在品이 多量增加될터 買上漏落米가 相當함을 豫想하야 阪地市場을 中心으로한 三木、松本、山種等 有力側의 賣叩로高價에서 旣히 百餘丁의 瓦落을 告하엿스며 當地는 比較的下澁狀態를 못하면서도 小百丁의低落을告하엿다 要하면『인푸레』景氣의 諸物價高에 比하야 米價의低에主眼한 農家의 態度가 絕對賣惜方針을 取하는等米界人의 大同觀察로보면 深入落이업을것을 足히 豫想할수잇스며 따라서 弱氣側도 二、三十錢의 利潤을生하는데는 곳利退하는光景이요 또는 强氣側은市勢가떠러질수록好個의押目이라하야 防戰不怠함으로 一落後에는 반드시下澁狀態를奏하다 그러나 買方針도 即効를奏하지안을것갓고 當分保合을繼續하리라는商談도업지아니하다

無風地帶의觀

爾來强材의一助가되어오든政府米買上도 第三回에止하고 更히買上을 斷行하지안을것을 누구나 觀測하고잇스니 上勢를見하리라고 斷言키難하고 又는朝鮮米의在品이 豊富하고도 買上漏落米가多함으로 數次의 瓦落을 豫期할수잇스나『인푸레』景氣에伴한 諸物價의昂騰으로보아서 割低인 米價의又復低落을 期待키難하다 그럼으로 市勢는難伸難押으로 當分時日을 發할모양이다 그리고時期가正히 春暖期에入함으로 例의 春眠狀態를免치못할모양이쪽 市勢는 文字그대로의 無風地帶의 觀이 업지아니하다 要하면 春暖期를 지나서 農繁期에入하야 天候의如何를따라 비로소 波瀾萬丈의市勢를 演出하지안흘가한 商談만잇슬뿐이다 果如何?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	中	先	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正米
小口賣買
保勢

京城不變 朝來定期의一息

期米
細刻裡
下澁

前場細刻 昨後場小反撥을示하든 當地市場은 今朝阪地三十四圓八十六錢인 六丁高에 據하고 寄는一圓九十二錢인 昨比四丁低 中은二圓九十七錢인 先限은三十二圓三十七錢同價 止는 反而 反撥細刻으로 場을終始한後 地의 附近에서 細刻함에 따라 三十錢을 中心으로 小幅浮動하다가 結局阪地八十三錢止를 보고 三十三錢에止場하다

今日財界 十二日

◆米 (單位錢)

	今日終止	比前日終止
仁川期米先限	三二·四〇	不變
大阪期米先限	三四·八三	六高
京城白米(二等一石)	三三·〇〇	不變
正租(仁川)一等	一三·六五	不變

◆株 (單位十錢)

	今日終止	比前日終止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一五五·五	[illegible]
鐘紡	二六二·七	[illegible]

◆金 (先限單位錢)

	今日終止	比前日終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川保合

定期保合으로低然不賣不買의 閑散狀態를繼續中이나 買方으로서는 內地入注不振인때이라 一段의 低價를期待하고買騰하고잇스나 持米側으로서는八十錢以下는 賣澁模樣으로 賣買는一向不振이다 今日의 仲値는 大體昨日과不變이다 ㊤穀良三等 三一、六五 四等 三一、四五 銀坊主 三等 三一、四五 多摩錦 三等 [illegible]

釜山凡調

場面은賣物僅少로 賣買모두 小口에 限하고 市價도 三等三十二圓附近으로凡調이다 ㊦穀良三等三二、八〇 一等白米一三、〇〇 四等三一、八〇 [illegible]

大邱保合

極度의 正租薄으로 奧地持米側도 漸次强硬態度를 固執하게되어 場面은賣物不足狀態를 示現하엿스나 內注杜絕로 此邊嫌氣가擡頭하야 買付치안코 保合商狀의 推移이다 ㊥穀良三等三一、四〇 四等三一、一五 二〇一等白米一三、八五

群山少弛

奧地高價는 易騰하고 低價에는 難落하는 風情으로 先高期待로 原料正租는 賣惜하나 保管料高로 一部에는 賣拔하려고 焦燥하는이도잇서市中人氣軟化傾向과 春暖惱의 念慮도잇서 依然消極的態度이나低價에는 政府米의 手當等도잇서

木浦不變

市勢를 支配하는 奧地所持側態度는 過日의仕手關係로 오른落도 도로혀 賣惜態度에 助勢한모양이되어 前天災直前의 貓境과 다시 차즘農繁期도 되어 糶米도 적어市中으로又復賣物薄이되엇다 一方統制政策의 強化施行과함께 通俗出回도 思惑賣는 全然바랄수업고移入고 朝鮮米의 大體으로 來月부터 出廻하는 蓬萊米의 推移如何하로 推出치안허 市場은 依然賣需小口賣買이어서 市價도 前日同樣으로 不變이엇다 ㊥銀坊主三等三一、七〇 四等三一、四〇 一等白米一三、〇五

結局市價五錢低로 小甘狀을 呈하엿다 ㊥銀坊主三等三一、五五 四等三一、三五 一等白米一三、九〇

京城物價 (十二日)

品名	價格
[illegible]	[illegible]

海外經濟 十一日

[illegible]	[illegible]

◆朝鮮銀行券 十一日 ◆日本銀行券 ◆鑛油粕·麥粉 ◆金利·手形交換 ◆金銀價 ◆對外爲替 ◆正米 ◆正租 ◆雜穀 ◆綿絲布 ◆滿洲商況

[illegible]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鑑定代引日步 ◆朝取主要取組高 ◆大阪短期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東京短期 ◆東京現株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釜山期米 ◆群山期米 ◆木浦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大阪綿絲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絲 ◆大阪砂糖 ◆東京砂糖

[illegible]	[illegible]

重石·亞鉛 買入 重石鑛作業費金融 明信商會 京城鐘路一丁目四五 電(光)一六九七番

水鉛螢石 重石 分析 鑛石 買入 內鮮鑛業社 (被商會改称) 京城鐘路一丁目三二 電光二一〇七番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府本町三丁目 電話一九五·六·九

株式 期米 玉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マルタマ取引店

京城 仁川 金益證券 益 賣買

株式 東 賣買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案內書贈呈